



# 더 큰 도약을 위한 빠른도전

제2회  
고졸취업 감동수기 공모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엮음

남보다 먼저 성공의 로드맵을 그려가는  
앞서가는 능력 있는 고졸

감동의 성공 스토리 속에서 그들의 꿈을 향한 당찬 의지와 노력을 엿본다



더 큰 도약을 위한  
빠른도전 제2회  
고졸취업 감동수기 공모전

## 만든 사람들

---

### 교육부

국장 김환식

과장 김홍순

교육연구사 최경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선태

연구원 신연주

연구원 장경천

### 심사위원단

교사 고은아(전주상업정보고)

교사 김정민(김천생명과학고)

교사 김종오(서울공업고)

교수 정재화(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실장 최태주(KFX국민행복재단)

팀장 김중관(KB국민은행)

팀장 이무상(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박영태(한국경제매거진)

대표이사 어재동(S&D ENG)

컨설턴트 장혜정(Team Create of Soop)

프로듀서 겸 작가 문태준(불교방송BBS)



# 더 큰 도약을 위한 빠른도전

제2회  
고졸취업 감동수기 공모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역음

● 대통령 말씀



##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 :: 대통령 취임사

-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중에서 (2013.02.25.)



저는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 시작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주춧돌로 삼아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배움을 즐길 수 있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국민이 많아 질 때, 진정한 국민행복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사장되고, 창의성이 상실되는 천편일률적인 경쟁에만 매달려있으면 우리의 미래도 얼어붙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찾아내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찾아내서 자신만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가고, 그것으로 평가받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회에 나와서도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꿈과 끼가 클 수 없고, 희망도 자랄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꿈과 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학벌위주에서 능력 위주로 바꿔가겠습니다.

::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말씀 중에서 (2013.08.20.)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과 같은 수많은 기능인재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기능인들이 능력으로 평가받고 합당한 대우 속에서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학벌이 아닌 능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기업들이 학벌과 스펙이 아닌 직무역량을 기준으로 채용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임금과 승진이 실력에 따라 결정되도록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와 인사관리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채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변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서 학벌보다 기술을, 스펙보다 능력의 길을 선택한 여러분께 더 나은 내일을 열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맞춤형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고 방문

- 대통령과 함께하는 특성화고 간담회 말씀 중에서 (2014.04.14.)



요즘 분위기가 학교에서 ‘기업이나 산업체에 어떻게 하면 맞는 좋은 인재들을 키울까’ 하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기업이나 산업체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들이 왔을 때 재교육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교육과 지원을 하면서 인재들을 얻을까’ 이런 데 서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의 틀이 고착되어 가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나가도록 뒷받침을 많이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현장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까 말씀대로 기업체에는 세제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면서 교육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방향



으로 앞으로 정책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어떻게든지 그 분야에서 최고 인재로 키우면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면 해외에까지도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 교육과 취업한 후에도 자기가 원하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도 능력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하고 대우에 있어 차별을 두거나 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직무능력 표준 개발을 해서 그 직무능력에 맞는 실력을 가지게 되면 학교와 상관없이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학교, 산업체가 전부 삼위일체가 되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꿈과 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학생들 개개인의 행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나라발전의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재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도전, 미래를 여는 튼튼한 열쇠

교육부 장관 서남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서남수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 환경에서는 학벌이나 스펙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중심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전문 인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고,

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 분야를 찾아 성공 취업에 도전하는 진취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무 역량 중심의 ‘고졸 취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역할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 취업률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특히 올해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92.3%에 달하는 등 의미 있는 취업 성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교육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뿐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 역량을 갖춘 고졸 인재들이 취업 후에도 우수한 직무 능력을 인정받고, 자신의 꿈과 끼를

지속적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정착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부는 고졸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넘어 직무 역량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2회 고졸취업 감동수기 공모전'은 '더 큰 도약을 위한 빠른 도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고졸 인재들의 땀과 열정이 가득한 취업 성공담과 함께, 사랑과 믿음으로 자녀의 꿈을 응원해 주신 부모님의 이야기, 제자들의 꿈과 끼를 찾아 주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많이 모였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이 학교 현장에 널리 보급되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뿐 아니라 고졸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직업을 결정하는 일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하고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가진 재능과 적성을 살려 진로를 찾고, 행복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졸취업에서 인생 경제 해답을 찾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박영범



‘고졸취업 감동수기 공모전’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뜨거웠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열정, 사회에 진출하여 당당하게 실력으로 인정받으며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 나가고 있는 고졸 인재들의 패기, 자랑스러운 자녀와 제자에 대한 애정을 듬뿍 느낄 수 있는 각양각색의 스토리가 풍성하게 접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모전이 명실공히 고졸 취업의 성공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였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모전의 수기를 통해 만나본 많은 우수사례를 통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특성화고의 70% 이상의 학생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던 불과 몇 년전을 돌이켜 볼 때 실로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의 기업에 실력으로 당당하게 합격하는 친구를 보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되고, 선배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한 후배들은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변화에 교사들은 더욱 보람을 느끼며 지도하고 그 결과 학교에는 긍정의 바람이 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고졸 취업 및 후진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 공공부문, 금융기관 등의 고졸채용 규모 축소 등으로 고졸 취업지원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존재하며 고졸 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의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수기집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에 진출한 고졸 인재들에게 있었습니다. 사회가 인재를 실력으로 인정하고 대우 해주면 좋은 취업처를 위해 꼭 대학 진학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는 학력 인플레이를 감소시켜 우리나라의 고질화 된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책 또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졸 취업 문화가 시대적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수기집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수많은 ‘꿈’과 이를 향한 도전으로 취업에 당당히 성공한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사랑과 믿음으로 이끌어주신 선생님들의 숨은 노력과 한결같은 믿음으로 자녀의 선택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학부모, 선배 졸업생들의 진솔한 사연은 고졸 취업의 새로운 방향과 희망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사회를 학력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 사회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주인공인 고졸 인재들의 따뜻한 감동 스토리가 많은 이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로 널리 읽히고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박영범

##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갈 고졸인재

KRX국민행복재단 이사장 최경수



고졸취업 감동수기 공모전 수기집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이 수기집을 통해 전해지는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는, 미래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지혜와 용기를 전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과는 차별화된 길에 도전하여 새로운 성공모델로 우뚝 선 이야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한 당찬 의지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통해 당당히 목표를 달성해낸 이야기들에서 저도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의 학벌 지상주의와 청년실업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은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와 학교, 기업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고졸 인재들이 배출되고, 특성화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등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도 고졸인재 채용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거래소에 입사한 특성화고 출신 신입직원들도 회사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당당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력

으로 무장한 특성화고 학생들이 일궈낸 변화입니다.

앞으로 고졸인재들의 활약을 통해 우리 사회는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열린 고용사회로 더욱 나아갈 것입니다. 젊은 인재들의 창의력과 열정, 도전정신이 열매를 맺으며, 장차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거래소와 KRX국민행복재단도 특성화고 인재육성 사업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다방면에 걸친 지원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번 공모전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고졸취업 감동수기 공모전」이 더욱 발전하여, 우리사회가 능력중심의 사회로 발전해나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최경수



## 인생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라

KB국민은행 은행장 이건호



금번 '제2회 고졸취업 감동수기 공모전'에 산업계를 대표한 후원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 열정을 담은 수기집을 접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며 몽클하였고, 주위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원하는 직장을 얻는 과정을 통해 저 또한 그 열정과 끈기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청년 취업난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극심한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다수의 청년들이 자격증 취득과 어학성적 향상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청년' 그 자체만으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본인 스스로 즐거워하고 원하는 일을 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학력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본인의 실력을 쌓아, 남들과는 차별화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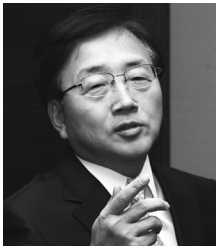
저희 KB국민은행도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2011년 1월 일자리정보제공 프로젝트인 「KB굿잡」을 출범시킴으로써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미스매치를 극복하고 일자리문제를 해소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왔습니다. 같은 해 3월 금융권 최초로 교육과학기술부와 MOU 체결을 통해 KB굿잡 사이트 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특별전용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한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KB굿잡 취업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운영하는 등 학력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번 공모전은 고졸인재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능력 위주의 사회 정착을 위한 훌륭한 ‘소통의 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모전을 더욱 활성화시켜 우수한 고졸인재를 배출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현 시점에도 묵묵히 자신의 능력을 키워 미래의 공모전 스토리 주인공이 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이 건 로

## 여러분들이 ‘미래의 사장님’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제2회 고졸취업 감동수기 공모전’에 참여하고 입상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가족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고난을 겪어 내면서 기술과 기능을 익혀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입학하여 기술을 배우고, 취업을 준비하고, 면접에 응시하고, 취업에 미끄러지면 또 다시 도전하는 등 온갖 고충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어 취업에 성공한 여러분들은 이미 ‘미래의 사장님’입니다. 취업 성공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훌륭한 미래의 CEO가 될 것이라 확신 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취업에 도전한 젊은 친구들이 있기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끊임없는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에 처음 내딛는 직장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 됩니다. 그럴 때마다 직장 동료, 선배,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응원해 주신 부모님, 믿음으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 용기와 격려로서 이끌어 주신 선배님들의 노력에 기업은 발전하게 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공부하는 직장인, 연구하는 직장인, 그리고 기업을 책임지는 사장님이 되어, 여러분들이 만든 좋은 일자리에 꿈을 꾸는 후배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발간된 수기집에 소개된 취업성공 이야기가 미래를 설계 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한 모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가족이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동근

##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한 열정과 감동의 수기

심사위원 대표 문태준

금번 ‘고졸취업 감동수기 공모전’의 심사를 진행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불굴의 의지와 당찬 동력,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깊은 신뢰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불꽃과도 같은 열의에도 제 심장이 한 번 더 뛰었습니다. 좌절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더구나 인생 최초의 격동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격량의 몰아침은 불가피할 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대양(大洋)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항해사에 비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하나같이 늠름했습니다. 거센 파고를 대담하게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기를 읽으면서 연신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평균수명이 40년인 솔개 가운데는 흑간 70년 이상을 생존하는 개체가 있다고 합니다. 부리와 날개와 발톱을 견고히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디어진 연장의 날을 불에 달구고 두드려서 예리하게 만들듯이 말입니다. 학생들의 수기는 각고의 노력으로 스스로 자신을 버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수기들이 육필(肉筆)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수기들이 두근

거림이었고, 몽클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연령이 낮아도 한 사람 한사람은 그 자체로 개화한 꽃이며, 하나의 완성이며, 충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육중한 산을 이루는 것은 매일매일 쌓아올린 한 줌의 흙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하루하루가 흙을 쌓아 웅장한 산을 이뤄가는 과정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학벌주의를 무너뜨리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떳떳하게 미래를 개척하고 있을 모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사회는 이 학생들의 원력에 의해 신선하고도 큰 변화를 앞으로도 계속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견인해가고 있는 변화에 호응해준 모든 기업과 정부 기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고졸취업 감동수기 공모전’이 지속되고 더욱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또 청량한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Contents



## | 대통령 말씀 | • 04

### | 발간사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도전, 미래를 여는 튼튼한 열쇠 • 09  
교육부 장관 서남수

고졸취업에서 인생 경제 해답을 찾다 • 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박영범

### | 인사말 |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갈 고졸인재 • 13  
KRX국민행복재단 이사장 최경수

인생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라 • 15  
KB국민은행 은행장 이건호

여러분들이 '미래의 사장님' • 17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 | 추천사 |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한 열정과 감동의 수기 • 19  
심사위원 대표 문태준



## Part 01

### 제2회 고졸취업 감동수기 공모전 재학생 부문

그저 겁만 내는 청춘들,해보긴 해 봤나요? • 29  
금상 / 조민아

대한민국 청춘, 10대의 취업 보고서 • 34  
은상 / 김유정

길 잃은 나에게 '경험'이라는 지도를 주었다 • 40  
은상 / 백중원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특별한 꿈을 꾸다 • 47  
은상 / 황지수

남들과 다른 길에서 나의 꿈을 찾다 • 53  
동상 / 권순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 59  
동상 / 김은혜

성장통은 고졸취업의 꿈을 싣고 • 65  
동상 / 박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 73  
동상 / 양은비

꿈의 기업으로 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 80  
특별상 / 김대용

고졸 취업의 희망을 쏘다 • 87  
특별상 / 김성은

서울촌놈 삼천포로 빠져 성공하다 • 92  
특별상 / 박현근

꿈을 그려주는 색연필 • 98  
특별상 / 안희상

응답하라, 나의 꿈! • 104  
특별상

고졸 취업 성공의 세 가지 비결 • 111  
특별상 / 장필수

## Part 02

### 제2회 고졸취업 감동수기 공모전 졸업생 부문

인생은 B(Birth)와 D(Death)사이의 C(Choice)다! • 119

금상 / 정송이

특성화고 인생 역전기 • 124

은상 / 김준형

모래 속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 • 130

동상 / 김찬미

고마워요, 특성화고 • 136

동상 / 최다혜

가시밭길을 꽃밭으로 만드는 법 • 142

특별상 / 강보영

공기업을 내 품 안에 • 147

특별상 / 황민기

## Part 03

### 제2회 고졸취업 감동수기 공모전 성인 부문

세 명의 담임교사가 이뤄낸 특별한 기적 • 155

금상 / 박초롱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 • 162

은상 / 김현량

특성화고 선택? 잘했군, 잘했어! • 170

은상 / 이희정

“명곤아, 네가 나의 스승이야” • 177

동상 / 김혜원

고졸 취업, 그 해법은? • 185

동상 / 이신규

0.1g의 희망과 손을 잡고 • 192

동상 / 최창미

복싱 선수, 9급 공무원이 되다! • 197

특별상 / 신진규

도전하세요,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요! • 203

특별상 / 이정호



01

#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

제2회 고졸취업 감동수기 공모전 재학생 부문







## 그저 겁만 내는 청춘들, 해보긴 해 봤나요?



### 가난이라는 자극제를 복용하다

저는 1996년, IMF로 인한 불경기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부모님께서서는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으셨고, 현재까지 어머니 홀로 저희 두 남매를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어렸을 적부터 크고 작은 집안일 모두 스스로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또래 친구들보다 더 큰 성실함과 자립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자기 자신보다 저희를 먼저 챙기시곤 했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저는 이러한 가난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들은 제게 ‘꼭 성공해 어머니의 여생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겠다.’라는 꿈을 갖게 해 준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꿈을 가진 저에게 항상 더 큰 열정을 불태워 주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이 결코 좋은 환경이나 부유한 조건들이 아니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서커스가 더 많은 박수를 받는 것처럼 악조

건 속에서 성공은 더 큰 성취감과 희열을 느낄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 시작은 달라도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저는 빠른 년생으로서 친구들보다 1년 더 빨리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같은 내용을 학습해도 이해력과 내용 습득력이 또래 친구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항상 좋지 못한 성적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변화가 있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즈음. 저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생긴 후 부터였습니다. '목표'라는 종착지가 없으면 출발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저의 출발선은 남들에 비해 한참 뒤에 있었고, 달리는 속도마저 느렸으나 어른들의 말씀처럼 노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노력들은 저에게 20점 이상씩이나 향상된 평균 점수를 선물로 주었고, 고등학교 입학 시 장학생으로서 많은 선생님들께 좋은 인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높은 평균점수가 찾아오게 된 것은 노력한 그 즉시부터가 아니었습니다. 1년 정도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고, 남들만큼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며 좌절하던 저에게 담임선생님께서서는 고작 '남들만큼' 해놓고 1등이 되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많이 뒤처진다는 것을 느낀 저는 저의 꿈을 위해 남들보다 두세 배 더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남들보다 한 시간 더 공부하고, 한 시간 덜 자며, 한 번 더 복습하는 생활에 힘들 때도 있었으나, 그것을 견뎌낸 만큼 저 자신에게 뿌듯함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또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너 공부 잘한다'라는 말들마저 들으니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은 기분과 함께 자신감과 자존감이 많이 향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 저에게 시작과 결과란, 삶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페달을 밟는 성실함에 따라 종착지에 도착하는 시간과 상황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들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던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이지만, 앞서 가던 자전거들을 따라잡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페달을 굴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늦은 만큼 더 성실하게 달려왔기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근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달라도 결과는 항상 성실과 노력이 있는 쪽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을 느끼게 된 15살 저의 모습. 저는 현재도 항상 나태해진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열심히 달려오던 그때 그 시절의 초심을 떠올리곤 합니다.

###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삼성SDS 사원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중학교 시절 친구들을 만나 친구네 집에 놀러가게 되면 항상 모든 어머니들께서는 저에게 “넌 어디 고등학교 다니니?”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전자고등학교에 다닌다고 대답을 하며 특성화고등학교라는 말도 덧붙여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 인문계가 아닌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를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대학은 꼭 가야 한다며 충고해주는 어머니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대학 졸업증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보니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취업난이 찾아온 환경 속에서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꼭 무조건적인 대학졸업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낀 것입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발전해나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갖추고 있는

기술이란,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더 큰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깨달음으로 인해 저는 목표로 하던 꿈들을 대학이 아닌 직장에서 펼쳐보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두 남매를 위해 홀로 고생하신 어머니의 짐을 하루라도 더 빨리 덜어드리고자 하는 바람들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 고졸취업이라는 기회는 더욱 간절하고 절실하게 바라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고졸취업이라는 목표를 잡은 제가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내신 관리였습니다. 중학교 때 터득한 저 자신만의 공부 방법으로 높은 내신을 위해 힘썼고, 수행평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매 수업시간마다 조금이라도 더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였습니다. 또한, 항상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컴퓨터 학원에 다녀 다양한 자격증들을 취득할 수 있었으며, 봉사활동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교지편집 동아리에 들어 점심시간마다 자발적으로 도서관 책 정리와 대여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성실하고 보람찬 학교생활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함으로써 취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도 고3이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짊어지게 되었고, 그토록 기다렸던 삼성 고졸공채라는 기회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듯 저 자신을 믿으며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삼성 고졸공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서류전형 때에는 혹시라도 실수한 문장이 있을까 자기소개서 내용을 수십 수백 번 확인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회사에 원서를 제출해보며 떨었던 마음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성실했던 학교생활들이 빛을 발해 서류전형에서 깔끔한 합격을 맞이하게 되었

고, 2차 합격을 위해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를 도서관에서 하루가 멀다 하며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재들마다 유형과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다양하게 풀어보려 했으며 철저한 복습들로 조금이라도 더 탄탄하게 문제를 풀고자 했습니다. 웬만한 학교 시험기간 때보다 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기 때문인지 또 한 번 합격이라는 기회를 주셨고, 제가 정말 꿈꾸던 삼성SDS 본사로 면접을 보러 가게 되는 행운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면접 당일 날 너무 떨리고 긴장했기 때문에 어떤 질문들을 받았는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당한 인사와 바른 자세, 항상 웃는 얼굴과 밝고 씩씩한 목소리로 면접에 임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한 관문씩 통과할 때마다 결과 발표 날짜는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며 조여왔고 너무 간절했던 탓인지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의 이러한 간절함이 통한 것인지 2013년 7월 '최종합격'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종합격을 해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축하와 관심, 저 자신에 대한 뿌듯함과 고마움 등등 많은 것들을 느꼈으나, 합격을 해서 가장 좋았던 것은 그저 많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를 부러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자라온 제가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딸이 된 것 같아 너무 감격스러웠고, 그동안 항상 고생만 해 오신 어머니에게 좋은 것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행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행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대한민국 청춘, 10대의 취업 보고서



저는 2013년도 안전행정부 주관 세무직 9급 공무원에  
합격한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김유정입니다.

뜨거웠던 지난 여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했고 제가 가  
진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세무직 9급 공무원 합격’이라는 값진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뜨거운 열정이 덕분입니다. 또한 제 자신보다 더  
저를 믿어주었던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였기에 이룰 수 있  
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중학교 3학년 끝자락, 길게만 느껴졌던 3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고 저  
에게도 고등학교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내신 ‘30%’,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던 중간에 위치한 저의 성적은 인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  
학교 사이에서 갈등하게 하였습니다. 고민하던 과정에서 ‘조금만 더 공부  
하고 노력했다면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텐데’라며 후회하기도하

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를 잡아주신 건 부모님과 선생님이셨습니다. “용의 꼬리가 될 바엔 뱀의 머리가 되어라.” 부모님과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꿈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어릴 적 제 모습을 떠올리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선 활발하고 긍정적인 모습이었지만 그 외의 것들은 그저 ‘보통’, 보통만 하기를 원했습니다. 잘하고자하는 욕심이 없었기에 실력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렀고 어느새 어떤 일을 하던 한계라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하지만 특성화고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은 후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겼기에 중간에 머물기만 했던 저의 한계를 넘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저의 첫 목표는 바로 ‘입학성적 1등’이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저는 겨울방학동안 반 배치고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 수석입학이라는 영광을 얻어 기분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나만의 길을 찾는다는 것

1학년 때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잡았고 다른 학생들처럼 대학 생활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1년 간 오로지 대학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정말 대학을 가고 싶은 걸까, 남들이 다 가니까 나도 가는 건 아닐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민이 계속되다보니 공부에 점점 집중할 수 없었고 오로지 제 자신을 위해 의무감으로만 공부했습니다. 저는 내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채 대학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길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공채 준비반에 들어오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순간 이건 기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공채 반에

들어가는 것은 대학 하나만을 바라보며 쉽 없이 달려왔던 1년이란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고민하고 불안해하던 저에게 새로운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공채 반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후, ‘취업’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직 어떤 분야로 나가겠다는 확고한 계획이 없었기에 금융, 회계, 컴퓨터, 한국사 등 여러 종류의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다른 친구들과보다 준비가 늦었다는 생각에 불안감부터 안고 시작해야했고 조급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자격증 공부는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뒤처지고 싶지 않았기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제 자신을 채찍질하며 공부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한 차례도 실패 없이 준비해온 자격증을 모두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의 기쁨과 성취감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1학년 때부터 시작한 학생회 간부 활동을 통해 봉사활동, 대외활동을 하며 많은 경험을 쌓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사람들을 조금 더 당당히 마주 볼 수 있었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2학년은 새로운 꿈을 찾아 행복했고 하나하나 장애물을 헤쳐나가고 목표를 이뤄나갈 때마다 한 뼘씩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

2학년 겨울방학 때 한국사 자격증 반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앉아 취업 책자를 보며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어.”라며 각자 부푼 미래를 안고 서로 가고 싶은 회사를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의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금융, 회계 등 어느 정도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상태였고 내신도 과 1등이었기 때문에 어디든 원하는 곳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자만이었고 그 자만이 저에게 독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겨울방학이 끝나고 저에게만은 절대 올 것 같지 않던 고등학교 3학년이란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의 3월은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긴장감과 설렘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원서가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제일 먼저 원서를 쓴 회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었습니다. 처음 쓰는 원서라 제 이력 하나하나 입력하는 것조차 떨렸고 행여 실수라도 할까 마음이 조마조마 했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은 내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라 더 힘들기도 했습니다.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날 부푼 가슴을 안고 홈페이지에 제 이름을 쳐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서류탈락'이라는 글자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처음 써 본 원서라 상심도 컸지만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기에 금방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자산관리공사와 금융감독원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필기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특히나 금융감독원은 학교에서 1명밖에 쓸 수 없었고 약 13페이지 정도 되는 자기소개서를 썼었기에 선생님들께 죄송한 마음과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세 차례정도 떨어지다 보니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 왜 자꾸 떨어지는 걸까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저에겐 '간절함'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붙고자하는 간절함보다 제 자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자만심이 더 컸습니다. 저는 나약하게 만드는 자만심을 떨쳐내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처음 이 학

교를 선택하고 취업이란 꿈이 생기고 난 후 꿈을 좇아 달렸던 지난날의 저를 떠올리며 그 당시의 모습을 마음 속 깊이 되새겼습니다.

## 대한민국 청춘, 10대로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무엇이든 도전할 각오로 가득했을 때 9급 공무원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한 관문 중 가장 큰 관문인 필기시험은 국어, 한국사, 영어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매년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생각보다 나오지 않는 점수에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탈락이라는 결과만이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제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학교에 나와 공부를 했습니다.

드디어 필기시험 날! 이 날 어느 때보다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날까지 친구들과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서로에게 질문을 해가며 밤을 지새웠고 아빠와 통화를 하며 서럽게 울었던 기억도 납니다. 필기시험이 끝난 후 끝났다는 게 실감나진 않았지만 후련했고 열심히 했기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몇 주 뒤 홈페이지 합격자 명단에 제 수험번호와 이름이 있는 걸 보았고 옆에 있던 친구를 붙잡고 원 없이 울었습니다. 그 뒤로 마지막 관문인 면접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도 면접을 봐본 적이 없어 걱정이 앞서긴 했지만 잘 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의 생일이기도한 10월 19일 대망의 면접 날, 떨림과 설렘을 동시에 안고 면접장에 들어섰고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결국 10월 30일 저는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제 꿈을 드디어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살, 처음으로 거둬지는 실패의 아픔을 겪기도 했고 죽을 만큼 노력도 해보았고 꿈을 이루는 행복을 느껴보았습니다. 이제 곧 20살, 20대를 맞이 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룬 꿈을 더욱 키워 나갈 것이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 큰 꿈을 향해 달려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을 축구로 표현하자면 전반전 10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직 탐색적인 전반전 10분. 이제야 제 꿈을 이뤘고 남은 80분을 후회 없이 뛰어보고 싶습니다.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공무원 합격자 교육감님과 의 간담회





## 길 잃은 나에게 ‘경험’이라는 지도를 주었다



### 경험삼아 도전하라

저의 마지막 10대, 꽃다운 19살, 2013년 2월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KBS에서 가끔씩 즐겨보던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결승까지 오른 참가자 4명 모두 참신한 아이디어로 말도 참 잘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실에 스카우트 참가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가할 생각도 없었고, ‘내가 그곳을 어떻게 나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께서 한 번 참가해보라는 말씀에 경험을 중요시했던 저는 좋은 경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KBS 스카우트에 참가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경험삼아 도전했던 저는 우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짜릿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고등학생 여러분, 도전하기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겐 경험이라는 변명이 있습니다.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그 경험은 미래에 큰 자산이 될 것이며 세상을 보는 시각이 조금은 더 넓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게 기회가 그냥 주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담임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스카우트에 나갔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까지만 해도 공부를 열심히 안했기 때문에 학급에서 중간 정도 성적의 그냥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올라오면서 공부라도 한 번 열심히 해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를 올라오면서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굳은 다짐을 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자는 다짐을 안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력이란 의리 있는 단어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가 찾아왔습니다. 첫 시작이 중요하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급 내 5등이라는 성적으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이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다보니까 공부의 노하우가 생기면서 성적이 조금씩 더 올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에 학급 1등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100점이라는 점수를 받고 정말 가슴 벅차게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처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신 것이 그때서야 공감이 되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고3 때까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성적이 꾸준히 오르더군요. 또한 be to the CEO, 체육대회, 과학 골든벨, 포트폴리오 작성 대회, 자기소개서 쓰기 대회 등 여러 가지 대회에도 참가해 노력한 결과 저의 성실함을 선생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제게 기업은행 캠프나 스카우트 등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KBS 스카우트에 참가하게 되었죠.

## 힘난한 여정 스카우트

처음에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PPT 발표, TOP10 발표, 최종 본선 발표까지 우승하기에 제겐 너무 멀고 힘난한 길이었습니다. 경험삼아 TOP10까지를 목표로 하고 도전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첫 관문인 자기소개서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를 받은 며칠 뒤에 PPT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기실에는 부산, 서울 학생뿐만 아니라 마이스티고 학생까지 전국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원자들과 준비한 PPT를 발표하고 2차 면접 합격 통지를 가벼운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합격 발표자 명단이라는 한 통의 e-mail을 받았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저의 이름이 있더군요.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처음에 TOP10까지를 목표로 도전했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두렵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도전의 끝을 향해 더 전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방송촬영이 시작되고 최종 4인까지 나아가는 일만 남았던 것입니다. 저는 남들과는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PPT 발표에서 뉴스를 배경으로 잡고 뉴스를 보고 또 보고 수십 번을 다시 보면서 앵커 흉내를 냈습니다. 부족한 시간을 쪼개면서 연습하다보니 어느새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떨어져도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발표했고 색다르게 준비한 것을 심사위원들께서 좋게 봐주시는 덕분에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조금 생기더군요. 최종 발표는 주어진 주제대로 로봇을 직접 만들어 발표해야하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최종 촬영까지 1주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매일 로봇을 만들고 구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노력하고 열정적이었던 한 주를 뽑자면 스카우트를 준비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최종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제 인생에 돌도

없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촬영도 해보고 시장에서 인터뷰도 해보고 방송국 무대에도 서봤습니다. 제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고 저도 할 수 있다는 제자신에 대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경험을 한다면 느끼는 것과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스카우트라는 경험을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경험’은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거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 배움의 자세로

저는 마미로봇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주 금요일마다 전 직원이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협동심이 좋고 서로 마미가족이라고 부를 만큼 애정이 넘칩니다. 저는 이 회사의 로봇 연구원입니다. 로봇이라는 분야가 높은 학문을 요구하는 분야인데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만 배운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로봇분야로 취업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고, 고졸이 연구실에서 로봇을 개발하기에는 학문의 격차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석사, 박사 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고졸인 저로서는 같이 협력하기 어렵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학생입장의 마인드로 로봇을 같이 개발하니까 나이 차이와 배움의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 지금 알려주시는 것은 뭐든지 열심히 배우고 있으며 많이 배워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도 따로 프로그램을 공부하면서 꿈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로봇을 대학에서 배울 것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실습을 하면서 배웁니다.

대학에서 로봇을 배우는 분들과는 약간 다른 길일 뿐이지 로봇을 배워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로봇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거치는 일이 많더군요. 조그마한 제품을 만들더라도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로봇은 미래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로봇이 사람의 기대에 못 미치지만 향후 멀지 않아 로봇이 상용화될 것이고 현재도 많은 분야에 로봇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봇이라는 분야가 여러 가지 융합 분야이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배려하고 타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직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것이 많지만 그간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느낀 것은 이렇습니다. 개발자는 당장의 개발만을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생길 문제까지 해결할 줄 알아야 하며, 어떻게 하면 쉬운 공정을 거칠까 생각해야 하며, 개발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개발해야 하고, 소비자를 배려해야 하는 개발자만의 각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개발자가 제 이름으로 된 로봇을 개발해 전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공학자가 꿈꾸는 삶이 아닐까요? 로봇공학자라는 길은 먼 여정의 길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꿈이 설령 긴 여정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 경험으로 일어나다

저는 어렸을 때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남들이 말하듯 돈 걱정 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부유함은 사라지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이혼하시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형제를 잃고 대장암이라는 중병까지 걸리게 되셨습니다. 그 시절 제 나이 열 살 무렵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혼하시고 저희 3남매를 아버지께서 기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린 저희 3남매와 연로하신 할아버지를 홀로 기르시고 모시느라 암과 투병 하시면서도, 팔에 금이 가 깎스하는 상황에서도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에 밖에서 망치질을 하시고 힘들게 일하시며 가장이라는 큰 짐을 지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힘든 상황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자주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정신력이 그렇게 나약해서 되겠어?”라는 꾸지람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살아왔고, 영하 15도의 겨울 날씨에서 한숨도 자지 않고 밤을 새며 일도 해봤습니다. 또한 겨울에 집에 보일러를 틀지 않아 실내온도가 3도라서 말할 때 입김이 나오는 집에서 5년째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신력이라는 소신과 끈기와 인내심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배웠습니다.

만약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부유함은 있었겠지만 정신력도 약하고 끈기와 인내도 없으며 부정적인 아이로 성장했을 지도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어렸을 때 가난 속에서 자라서 온갖 고생을 다하시면서 자라오신 분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성공한 CEO 분들은 대부분 실패라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실패라는 경험은 우리를 한층 더 성장시키며 성공에 가깝게 인도할 것입니다. 실패는 좌절의 대상이 아니고 좋은 경험의 대상일 뿐입니다. 만약 제가 성공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

이 세계 어떻게 성공 했느냐고 물으면 당당히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실패라는 경험을 했거든요.” 내게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색다른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동굴 안에 밝은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특별한 꿈을 꾸다



###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

2010년 중학교 3학년의 가을을 잊지 못합니다.

사철 없이 차가운 물로 씻고 학교를 가야했던 날들, 급식비가 밀려 눈치 보며 급식소에서 밥을 먹던 날들, 행정실 선생님들을 피해 다녔던 날들, 법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늘 3순위였던 날들은 지금 돌아보면 상처로부터 굳은살을 심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6년 넘게 저희 가족들을 내버려둔 채 연락이 두절되어 엄마께서 삼남매를 홀로 키우셔야 했고 축구선수를 꿈꾸던 오빠는 프로 진출의 꿈을 접고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30%의 성적으로 인문계를 가기엔 충분했지만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어른들께는 인식이 좋지 않았던 특성화고에 진학하겠다고 엄마에게나 담임선

생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간 두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저를 응원해주셨고, 여러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처음 마음먹었던 대로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자’라는 신념 하나를 가지고 2011년 3월,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여러 갈래의 갈림길에 서다

열심히 공부했고, 반장을 맡아 책임감을 키웠으며, 선생님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저에겐 생각보다 많은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 일본어 선생님의 권유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해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내신 관리와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과외나 학원을 다니기엔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 저는 독학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공부를 하기엔 너무 버거웠고 또 실력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심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느껴 일본어 공부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갈림길에 서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저를 1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몇 번의 상담 끝에 저는 광주교육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다시금 수능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내신 관리와 야간 자율 학습까지 이어지는 수능 공부는 탄탄대로의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지만 교대 졸업 후의 진로가 불확정적이고 저희 집 형편과는 맞지 않아서 여러 선생님들과의 상담 끝에 1학년 겨울방학부터 저는 취업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준비를 하면서도 저희 집 상황이 좋지 않아 매번 겨울엔 가스가 끊

겨 한겨울에 찬물로 씻고 학교를 가고,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집으로 돌아와 추운 방에서 이불을 덮어 쓰고 양말을 세 겹 겹쳐 신어가며 했던 공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단어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고난이도의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지만 점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 자신감과 자존감을 잃다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겪은 후 펀드투자상담사와 은행텔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내신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방학에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공부한 결과 노력하면 보수가 온다는 말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2학년 말에는 6개의 자격증과 1.8등급, 2.8%의 내신을 그 열매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에 많은 친구들과 학교에 등교해 증권투자상담사 시험을 준비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겨울 식중독, 충수염 수술, 독감에 걸려 공부는커녕 학교에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취업 시기가 얼마 남지 않는 저에게는 큰 걱정으로 다가왔고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눈물로 보냈습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로 저는 개학을 맞았고, 선생님께서 어느 곳에 지원할 것인지를 조사하실 때 아무 곳도 소망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3학년 담임선생님께서서는 놀라서 저를 따로 불렀고, 저의 사정을 들으신 후에 있는 힘껏 안아주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하셨고, 그 다음날 저는 몇 군데 은행을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얼마 뒤, 취업부 부장 선생님께서 그런 저를 직접 찾아 오셨습니다.

## 나를 일으켜 세워준 한국예탁결제원(KSD)!

“한국예탁결제원 입사 지원 해보자!”

선생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건네신 말씀이었고, 저는 놀라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모두에게 꿈의 기업이자, 저 또한 가길 원했던 취업처였습니다. 작년에 롤모델로 삼았던 1년 선배님이 지원했다 떨어졌던 곳이어서 저는 지원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적극 찬성하고, 엄마의 ‘한 번 도전 해 보자’는 말씀에 저는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30번 넘게 수정하고, 자격증 카피를 10번도 넘게 한 저는 불안한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으로 지원을 마쳤습니다.

그후 4월 8일, 서류 전형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부터 저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면접과 논술 시험 응시를 위해 밤을 새어가며 준비한 나날들이 흘러갔고 1차 면접과 논술시험을 보기 위해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집 사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교통비조차 마련할 수 없어서 면접 장소에 갈 수 없었을 뻔 했지만, 제가 잘되길 바라셨던 엄마의 친구께서 위로의 용돈을 들고 낯선 서울에서 저를 맞이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위축되어 있던 저를 다행히 다시금 당당하게 해준 것은 논술시험의 주제였습니다.

서울로 오기 전 날 밤에 공부했던 ‘PC방 금연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가 주제로 나왔고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은 5~10줄 정도 쓰고 말

았지만 저는 2장이 넘도록 쓸 수 있었습니다. 기분 좋게 점심을 먹고 진행된 면접에서도 비록 너무 떨렸지만 제가 준비했던 것을 면접관님들께 모두 보여드릴 수 있었고, 면접이 끝난 후 예약원의 문을 열고나오며 무엇이 그렇게 벅차오르던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엉엉 울며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기분 좋게 면접을 끝냈지만,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어찌할 수가 없었나봅니다.

1차 면접 합격자 및 2차 면접을 통과한 후 최종합격을 하게 되었고 2차 면접 합격자 발표일에는 축하의 케이크와 꽃다발을 받았으며 학교 친구들과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행가래 세례를 받았습니다. 꿈꾸었던 기업에 들어가길 원했던 저 뿐만 아니라 취업 담당 선생님, 담임선생님 모두 울며 기뻐 뛰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자랐던 저는 저를 행복하게 해줄 R(ealize)=V(ivid)D(ream) 공식을 잊지 않았고, 마음속에 ‘한국예탁결제원에 합격함!’이라는 결의를 품고 지냈습니다.

분명 많은 고비들이 있었고, 저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은 일상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저는 다시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 **K! 한국예탁결제원에서 S! 특별한 D! 꿈을 꾸다**

저는 지금 한국예탁결제원 여의도 본사 증권대행부 명의개서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휴먼계좌를 보유한 주주들의 주식을 찾아주는 일, 주식의 명의를 바꾸어

주는 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 구주권을 신주권으로 교체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0개월 전까지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곳에 6개월 간 근무를 해도 여전히 꿈같은 지금…… 어찌면 것처럼 힘들었던 과거로 인해 지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신입사원에 불과하지만 사무실 자리에 앉아 제가 꾸고 있는 다디단 꿈은 후일에 금융계에 한 획을 긋는 멋진 여성,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처럼 어렵게 살아온 친구들을 마음으로 후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그들에겐 너무나도 적은 금액지만 5만원이라는 금액을 후원하고도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기부를 실천할 것이고, 그런 제 마음과 진심이 전해져 그들도 저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앞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공공기관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뛰어나서가 아닌, 제가 잘해서가 아닌 저를 믿고 도와주셨던 분들, 끝까지 응원했던 친구들, 힘들고 모진 상황 속에서도 가족이란 끈을 놓지 않은 책임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금융인들과 함께 금융의 메카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아침마다 새롭게 출근하는 저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를 외칩니다.





## 남들과 다른 길에서 나의 꿈을 찾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 학생이자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하는 대한주택보증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권순호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학창시절과 취업 준비 과정, 그리고 취업에 성공하여 일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경험에 대한 이 짙막한 글이 특성화고 진학에 대한 고민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매우 소심한 학생이었습니다. 반장선거에 출마하고 싶었지만 외부적인 환경요인과 남들 눈치를 보느라 출마하지 못했었고, 수업 시간에 흔히 하는 발표 또한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앞과 같은 이유로 못할 정도였습니다.

학업성적은 항상 바닥이었습니다. 이유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몰랐고, 제게 도움을 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이 또한 없었습니다. 학교생활이 무기력했다고 해야 할까요?

행여 몇몇 어른들께서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더라도 성공을 위한 것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저에겐 상투적이었고, 귀에 걸돌 뿐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넓은 집에 살며 좋은 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녀야 성공한 것인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 후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성공한 것인가?

깊은 생각 끝에 결국 행복한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성공’이라는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는 답을 얻게 되었고, 현재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저만의 행복 기준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시기가 다가왔고 저는 당연히 고등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로 가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서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것은 어떻겠냐며 제안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의 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였고 특성화고로 변경 될 예정이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저로서는 부모님의 권유는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학교에 가야하는 제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교생 중에 특성화고에 진학하려는 친구는 고작 한 명이였기에, 곁에 있던 친구들이 가지 않은 길을 홀로 가려는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부모님과과의 깊은 대화와 오랜 고심 끝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저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성화고에 입학하고 보니 각기 다른 지역에서 모여서 그런지 학교생활



에 대한 기대와 설렘보다는 낯선 친구들의 모습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까하는 걱정스런 마음과 소심함이 다시 일기 시작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한 저의 선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아 부끄러웠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내어 새 출발을 한다는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장선거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엔 반드시 출마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심했지만 용기를 내서 반장선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반장후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연설을 해서인지 반장으로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밴드부동아리에 지원하여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메인보컬로 뽑혔습니다. 또 학생회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반장 당선과 밴드부 메인보컬, 학생회 발탁 등으로 자신감을 얻어 제 학교생활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2,3학년을 연이어 반장 활동과 학생회 임원활동을 하게 되었고 교내·외 봉사활동, 교육기관 연수, 동아리연합총회장, 제1회 동아리연합축제 기획, 축제 사회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함으로써 여러 방면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제 꿈을 찾게 되었고, 막연했던 인생의 방향과 해야 할 일들을 찾은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또한 소심했던 저의 성격도 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꿈은 다른 사람이 저로 인해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밴드공연 때 작은 농담이나 익살스러운 퍼포먼스로 친구들이 행복해하고, 저의 작은 배려에 친구들이 고마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진학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와중에 학교 선배님들이 유명 공기업과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당시 집안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저는 진학보다는 취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정부에서 고졸채용을 대폭 확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누나가 취업준비생이어서 그 누구보다 취업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기회를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자격증을 위주로 준비했지만, 제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제 주변에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실생활에까지 적용시켜 활용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대부분 기출문제만 많이 풀고 이해하면 자격증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공부에 목말랐던 저는 자격증 공부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훗날 여담이지만 기업에서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보다 학교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더 중요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매일 신문과 독서를 통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제 자신만의 주장과 생각을 갖으려 공부했습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것들을 경험하려 했으며,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취업준비를 하면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입사 지원을 하면서 저는 제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기업보다는 공공의 이익

을 위한 공기업에서 다른 사람들의 편의와 행복을 위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공기업 중에 하나인 대한주택보증 지원서가 왔고, 여러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는 대한주택보증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이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을 준비하고 안식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거공간을 보증해주는 회사에서 일함으로써 저로 인해 국민들이 좀 더 편리 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절실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성공을 위해서 저는 틈틈이 상업관련 교과목 공부와 앞서 말했던 독서는 물론 사회에 관심을 갖고 신문을 꾸준히 읽어왔습니다. 그 결과 인·적성시험을 통과하고, 면접 때 가서는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절실하고 진정한 마음을 알아 봐주셨는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했을 때 과연 끝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지 반신반의 했었는데, 최종 합격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까지 디딤돌이 되어주신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취업 지원에 계속 낙방하는 친구들, 가슴을 졸이며 준비하거나 결과를 기다리는 친구들 앞에서 기쁨을 내색하기가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의 합격에 희망을 갖고 힘을 얻은 친구도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입사하기 전, 저는 고졸학력으로 과연 그 큰 기업에서 주어진 일을 잘 해 낼 수 있을지 또한 학력 차별이 있거나 단순 업무만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제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보증서 발급을 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적응의 시간을 주시고 교육을 통해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주셨습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일을 배우며 수행해나가고 있고 이에 보람을 느끼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잘 타서 좋은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도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졸업한 선배님들을 생각하면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제가 가져야 할 마음과 해야 할 일은 선배님의 뒤통까지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 회사생활을 성실히 하고 실력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후배님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면서 후배님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후배님들에게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어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당장 하고 싶은 것이 없고 삶이 무기력하다면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가만히 있는다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특성화고등학교 선택이 제 꿈을 찾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학창 시절이야 말로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이든 취업이든 한번뿐인 인생. 진정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할 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 진흙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 내는 조개가 되자

부모님께서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직업은 유치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엄마가 유치원 친구들을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친구들을 아끼고 챙겨주었는데 부모님께서서는 저의 그런 모습이 예뻐다고 종종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엄마의 직업은 영어 학원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학원에 매일 다니며 원어민 선생님과 제일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즐겁기만 한 저의 어린 시절이 끝났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어려운 가정형편을 이겨내기 위해 빵튀기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고 오는 날이면 숙제를 한 뒤에 빵튀기 포장하며 부모님을 도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쉬는 날이면 직접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공부만 하다가 어린 나이에 '장사'라는 것을 해보면서 물건을 팔고 돈을 버는 일이 재밌고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가 중학교를 입학할 때에는 부모님께서 계단 청소 일을 시작하셨고, 학교가 쉬는 날이면 저는 계단청소를 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는 것도 기특한 일이지만 공부도 그만큼 열심히 하면 좋겠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는 부모님과 트럭을 타고 다음 계단청소를 할 장소로 가는 동안 틈틈이 영어단어를 외웠고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면서 학교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덕분에 학업 성적이 꾸준히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고 용돈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평소 보고 싶었지만 사지 못했던 책을 사서 읽으며 힘들었던 마음을 위로하고,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성장과정을 보면 어렵게 자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힘든 상황이었기에 이겨내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시작이 반이다

친한 중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지만 저는 빨리 취업해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친구들과는 달리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전문교과목과 새로운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것이 적응이 안 되고 힘들어서 말 수도 적어졌습니다. 우울해서 가족 몰래 엉엉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인문계 학교로 전학을 생각하기도 하였지만 고등학교 1학년 영어선생님께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조언을 해주셔서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 마음가짐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특성화고와 저의 첫 만남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뜻 깊은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모르는 문제

가 생기면 수업이 끝나자마자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자 첫 시험에서 어려워하던 회계과목을 백점 맞았고 이때부터 회계에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회계영재반라는 교내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며 전산회계, 전산회계운용사 같은 회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인천시·전국 상업경진대회와 대학에서 주최하는 많은 회계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밤9시 아니면 10시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를 했지만 회계를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우고 싶은 생각에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고 세심한 내 성격이 정확성을 요구하는 회계와 잘 맞아 회계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둡게만 보이던 고교생활에 꿈과 목표가 생겼고, 앞으로 회계 분야에서 만큼은 다른 누구보다 최고가 되어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인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1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서는 한가지에만 치중하지 말고 다른 것에도 도전하고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골든벨, 영어어휘경시대회, 글로벌비즈니스대회와 같은 교내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여 다양한 경험을 했고, 이러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몰랐던 새로운 지식도 얻었고 다른 분야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2학년 때에는 취업을 목표로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까지 도움을 주는 교내 취업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이력서 작성이었지만 학

교 선생님들과 강사님들께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쉽게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입사하고 싶은 회사를 목표로 두고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꿈에 대한 절실함과 목표가 더욱 뚜렷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친구들과 서로 면접을 보면서 잘한 점이나 못한 점을 더 배울 수 있었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는 취업의 어려움을 실감하며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친절하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들과 같은 목표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 No pains, No gains

3학년이 되자 그동안 좋은 성적을 유지해왔고 자격증도 취득하였기에 취업은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11군데나 되는 대기업과 공기업에 지원하고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니던 친한 친구들이 하나 둘 취업이 되어 회사로 출근하자 조바심이 생기고 저도 빨리 취업이 되어 출근하고자 하는 바람이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을 위해 무언가를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계획표를 짰습니다.

저의 계획표 첫째는 아침 5시에 일어나기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속담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취업정보를 먼저 얻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먼저 펜을 입술 사이에 끼우고 책 몇 페이지를 읽는 것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평소 모의면접 때 발음 문제로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학교에 일찍 등교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부터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관리라고 생각하며 꾸준히 노력해 좋은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점점 변화하는 모습에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격려를 받으며 더욱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 ‘한 번 더!’라고 생각하자 입니다.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을 합격한 뒤 면접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취업부 선생님들께서는 모의면접을 많이 해주시고 자세나 처음 접해보는 면접질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 많은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여러 번 모의면접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아서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같이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와 함께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한명이 면접관이 되고 다른 한명이 지원자가 되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고 고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늦게까지 학교에서 면접 연습을 하고 집에 와 힘이 들어도 ‘한 번 더 하자!’라는 생각으로 엄마와 언니에게 면접관이 되어 달라고 부탁해 면접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앉는 자세나 인사를 할 때 태도를 보기 위해서 집에서 동생에게 카메라로 찍어 달라고 부탁하고 제 방을 면접실 삼아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들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떨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동안 취업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불안해하는 저를 보고 ‘평상시에 연습하던 것이 있으니까 잘해낼 수 있을 거야.’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해라.’라고 말씀해 주신대로 꾸준히 연습하며 제 자신을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던 10월 30일 밤 9시. 같이 면접을 본 친구가 먼저 합격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순간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서 멍하니 있다가 너무 기뻐 영영 울며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께 합격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잘 해낼 거라 믿고 있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해 눈물이 한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1층부터 3층까지 가르쳐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인사드렸습니다. 선생님들뿐 아니라 마치 자기가 합격한 것처럼 기뻐해주며 공무원 친구를 둔 게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반 친구들에게도 너무 고맙습니다.

### 보면 볼수록 더욱 빛나는 사람

합격이라는 결과가 있을 때까지 11번이라는 실패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를 믿어주고 격려해주시던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 더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부족한 점이 많았던 저를 항상 가르쳐주고 도와주시던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선생님들, 저에게 '9급 지역인재 공무원'이라는 기회를 준 안전행정부에도 정말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제 분야(회계)에서 만큼은 전문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자격증 취득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기회가 된다면 야간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을 다니며 전문성을 키울 것입니다. 더불어 국민을 대표해 나랏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국민을 위해 애쓰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 성장통은 고졸취업의 꿈을 신고



### 제 1장 한겨울의 무더위

그해는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시리고 매섭던 그 추위, 유년기의 저에게는 ‘개구쟁이’란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녔죠. 코 묻은 소매 밑 오른손으로 아버지가 사준 장난감 공구 통을 쥐노라면 두려울 게 없던 아이였어요. 보통 아이들이 자동차 장난감을 바닥에 굴리면서 뛰놀기 바쁘다면, 저는 분해하고 조립하기를 반복하는 호기심 가득한 꼬마였다고 할까요. 톱니가 맞물리는 간단한 구조였지만 모든 게 신기했고, 기계에 대해 로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화 디렉터였던 아버지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멋진 글을 써내는 법, 기분 좋은 말을 건네는 법 등어요. 특히 소심했던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습니다.

친구 만들기 1장. “사람을 대하기 어렵다면, 아빠라고 생각해. 그럼 네게 마음을 열어줄 거야.”

제게 있어 아버진 최고의 친구이자 영웅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여동

생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동생에게 귀여운 질투심을 갖기도 전에 아버지는 간경화로 인한 투병생활 끝에 세상과 작별을 하셨습니다. 아홉 살, 사별의 아픔을 느끼기에 가혹한 나이. 처음 입어보는 양복에 마냥 좋아하며, 장례식 때도 공구 통을 꼭 쥐고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실감이 나더군요. 가구마다 빨간 딱지가 붙고, 더 이상 분해하고 놀 장난감이 없다는 것. 그 이유는 아버지의 빈자리 때문이었겠죠.

어머니는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주야로 끼니를 거르며 고깃집 설거지, 학교 청소, 과자 판매까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전 항상 비관적이고 우울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불행하다는 생각에 얽매어, 사고도 많이 쳤었지요. ‘개구쟁이’가 ‘문제아’가 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어느 겨울 날. 늦게 일을 나서는 어머니께 심통이 나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내 조심스럽게 방문이 열리더니 어머니는 당신의 이불을 우리에게 덮어주고 퐁퐁 언 손으로 쓰다듬길 여러 차례. 연거푸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던 어머니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직도 저는 그날 어머니의 차가운 손에서 느껴지던 따뜻한 전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심스럽게 방문이 닫혔습니다.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하는 어린 동생에게 등을 돌린 채, 이불속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마치 감전된 듯 찌릿해진 코와 눈, 목구멍에선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꼭 누르고 참아도 소용없이 결국 터져 나오는 눈물. 곤히 자는 동생이 께까봐 ‘끄-음 끄-음’ 목구멍에 울음소리를 넘기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마음은 성숙해지려 하지만, 몸은 영락없는 어린 아이였나 봅니다. 잊고 지내던 공구통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

을 위해 내가 이뤄야 할 꿈이 무엇인지. 그때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불 속은 답답하리만큼 이렇게 무더운데, 발을 조금만 내밀기만 해도 왜 이리 시린지요. 어머니는 그 겨울 속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나도 머지않아 가족이라는 따뜻함 아니, 뜨거움을 벗어던지고 차디찬 추위 속으로 뛰어들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생각에 뒤척이며 철없던 나의 겨울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 제 2장 마라톤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울리자, 떼 무리의 사람들이 앞 다투어 나갑니다. 이윽고 중계방송에서는 좋은 기록이 있는 선수를 힘주어 소개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긴장하고, 또 많은 이들이 기대를 걸죠. 취업을 앞 둔 학생들에겐 치열한 마라톤의 출발처럼 취업이란 긴 터널 앞에 두려움과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전 좋은 기록을 가진 선수처럼 되길 원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열심히 공부해 적성엔 상관없이 이름 있는 대학교 진학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보내길 어느덧 3년.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있는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희끗희끗 흰머리의 설비기사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역류하던 보일러의 물이 흘러넘치는 상황에도 스페너를 돌리면서 침착하게 기계를 수리하던 그 모습이 참 멋있었습니다.

옆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본 게 인연이 되어 방학 때면 설비기사 아저씨를 “선생님, 선생님” 부르며 일을 따라다녔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던 실용적인 지식들을 몸소 익혔습니다. 손 마디마디의 굳은살이 노장의 노련함을 증명하듯, 퇴직이 가까운 나이임에도 ‘기술’하나로 가장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 넘치지는 않아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성공의 참 의미

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도 흔한 질문입니다. 중학교까지의 저는 이 질문을 멋진 대답으로 받아치기 위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1.5톤 트럭에 기대어 앉아, 제 인생 선생님이신 설비기사 아저씨는 진로에 대한 많은 조언을 해주셨죠. “정말 필요한 건 학술이 아닌 기술이야!”라고.

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해야 할 기로에 놓였습니다. ‘일반계’로 진학할 것인가, ‘특성화고’에서 도전할 것인가. 때론 긴긴 인생의 마라톤에서 많은 무리들이 가는 길 말고도 샛길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특성화고 진학을 말리셨지만 도전을 응원해주던 가족이 있어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원하던 과에 1등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진학에 필요한 학점 위주의 교육이 아닌, 정말 좋아했던 냉동 공조, 용접, CAD와 같은 기계기술을 배우니 학교생활은 늘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즐거운 일상도 잠시. 2학년이 되던 해에 무리하신 탓인지 어머니는 ‘이석증’이 발병해 쓰러지셨습니다. 몸의 균형 기관이 깨지는 고통스러운 병이지요. 저는 더욱 기술을 배우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며 샀던 ‘첫 작업복.’ 모두가 설 때에도, 늦은 밤에도 한 번 더 연습해보며 3개의 자격증을 안겨준 첫 작업복은 아직도 제 소중한 단짝입니다. 실습이 끝나면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사람들이 불쾌해 할까봐 많은 자리를 두고도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집에 간적도 많았습니다. 힘든 때도 있었지만 배운 기술을 발휘하며 떳떳하게 일하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낙천적으로 생활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작업복은 낡았지만 언제나 장롱 한 편에 고이 접어둔 첫 작업복을 볼 때면 “힘내!”라고 말하는 듯 새롭게 다가오네요.

꽃다운 청춘들의 불타는 열정 덕분일까요, 기쁘게도 학교가 ‘발명·특허 특성화고’로 지정이 되면서 레벨 업 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평소 생활 아이디어로, 발명대회들에서 수상을 받았습니다. 자신감이 붙고 기계설계와 발명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기회는 우연히 찾아온다죠. “진이 너는 끼가 많으니까 할 수 있을 거야, 도전해봐.” 학과 부장 선생님께서 건네준 좋은 장. 거기엔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국내 헤어미용 제품사의 연구원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 때마침 주제 역시 ‘발명의 신’이었지요. 문득 스치는 생각엔 “이건 정말 나를 위한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집에 가자마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이면, 밥상 앞에 모여서 보던 스카우트.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내가 나가면 모~두 긴장할 걸.”하고 큰소리치던 내게, 막상 그 기회가 오니 오히려 제가 긴장 하는 거 있죠?

일주일 뒤. 첫 면접을 알리는 전화벨이 울리고, 면접관 누나와의 어색한 악수가 하이파이브로 끝날 때까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며칠 뒤, 작가누나의 따뜻한 목소릴 따라 처음 방문한 꿈의 기업. 심사를 거친 뒤 치르게 될 PPT 면접과 기숙사 면접. 합숙을 통해 조직 적응력과 프레젠테이션 까지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을 최대한 어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10인의 친구들과 숙소로 향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명문고 출신의 친구, 자격증이 6개나 되는 친구, 수상경력이 화려한 친구까지 쟁쟁한 상대들을 보며 내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뒷걸음질 치고 싶은 마음에, 또 ‘학력’보다는 ‘능력’과 ‘인성’이라 늘 강조하던 진로 선생님에게 애꿎은 불평을 늘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선택을 전적으로 응원해준 가족, 누구보다 ‘간절함’이란 무기

가 있었기에 마음을 다잡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박 2일간의 면접과 밤샘 연습을 마치고 아침 일찍이 본선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면접관은 3명. 기업의 대표이사님과 청년 발명가, 기계 공학과 교수님. 면접을 시작하기도 전에 창문너머로 전해지는 날카롭고 예리한 눈빛에 움츠러들 뻔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대하기 어렵다면, 아 빠라고 생각해. 그럼 네게 마음을 열어 줄 거야.” 그분들에게는 부족해 보이더라도 최선을 다해야지 생각했습니다. 가끔 우울할 때면 돌아가신 아버지는 내게 해준 게 없다며 원망하던 나인데... 아버진 무엇보다 큰 교훈을 남겨 주셨던 것이지요.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장에 섰습니다. 덩치에 안 맞는 작은 기타를 들고 ‘바운스~ 바운스’ 노래를 부르며 나름 애교도 부리고, 기업의 히트 상품 아이디어로 준비해 간 발명품 소개를 당당히 마치자, 날카롭던 눈빛들은 오 뉴월 봄빛 같은 아빠 미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곤 안 믿겨 지네요.”라는 말이 저를 얼마나 기분 좋게 만들었던가. 2차 면접에서도 당당히 ‘합격’을 받아냈을 때, 처음으로 좋아하던 점심도 거르고, 어머니께 제일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통원치료를 받는 중이셔서 어떤 약보다도 더 효력 있는 소식이 됐으면 하고 간절히 바랬지요. (결선을 앞두고 밥상엔 고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선의 마지막 주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발명품’이었어요. 결선까지 일주일이란 시간이 남았고 구상 하는 데만 3일이 걸렸습니다. 남중, 남고를 나온 제가 여성들의 헤어 미용 고민을 알 턱이 있을까요. 하지만 답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바로 ‘발명품’이란 단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이었죠. 먼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관찰했습니다. 여동생은 잠이 많



아 감은 머리를 못 말리고 나가기가 일쑤였죠, 어머니의 가장 큰 고민은 주부들의 적, 탈모였답니다. 그날로 주말도 반납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결선과제를 제작 했습니다. 점점 작품에 마음을 담다보니 결선 과제가 아니라 가족에게 줄 선물이란 느낌이 들더군요. 작은 헬멧에 지압기와 드라이기를 달고 옆구리엔 예쁜 보라색 꽃도 그려 넣었습니다.

드디어 결선 촬영 날. 처음 가보는 방송국에서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큰 팻말을 들고 응원에 나서줬습니다. 15평 남짓한 세트장을 딱 채운에 눈부신 조명들과 수많은 카메라들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덜덜 떨며 대기실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청중들은 나를 주시하고, 같이 결선에 오른 친구들이 가져온 엄청난 발명품들을 보니 긴장감이 더해졌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차분히 눈을 감고 떠올려 봤습니다. 기계설계 연구원으로서의 내 꿈을, 가족을. 이를 악물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서바이벌의 면접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등 뒤로 보이는 점수가 어떻게 돼 가는지도 모른 채, 손에 땀을 쥐었죠. 두 눈을 질끈 감고 다시 떴을 때, 제 양옆으로 폭죽이 터졌습니다. 뛰쳐나오는 친구들과 멀리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와 동생. 아직도 우승의 순간이 잊히지가 않아요.

지금은 입사한지 어언 반년이 지나, 어엿한 사회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회사의 첫 고졸 취업자로서 학력 차이는 있지만. 그들이 오랜 시간 쌓은 경험과 지식들을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있습니다. '스펀지' 같다고 할까요. 업무에 대한 지식을 빠르게 흡수해 나가다 보니, 학력의 벽을 넘어 유능한 사원으로, 귀여운 막내로 사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일찍 시작한 사회경험은 어떤 대학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값진 수업입니다.

이제야, 저는 긴 마라톤 구간의 전환점을 돌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터널들이 나를 어둡게 할지, 평탄한 길이 어디로 펼쳐져 있는지, 결승선은 언제쯤 다다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코스를 모르기에 늘 새롭게 달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때의 아픔으로 자라는 성장통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기에 성숙한 마음으로 작은 행복을 맞이합니다. 설렘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지금 가는 이 길이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학력’보단 ‘능력’과 ‘인성’으로 푹푹 뭉쳐서,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가 아닌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습니까?”란 질문이 무색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대한민국 고졸 취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고등학교 재학 3년의 시간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의미 있는 날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흐뭇한 미소를 띠고 그 동안 기록한 일기장을 보며 저는 지난 시간의 일들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홀로 저와 제 동생을 키우시며 공장 일부터 가사도우미까지 험한 일을 하시면서 보살피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아버지와 이혼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부족해 보이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벌어 오신 돈은 기본적인 생활비로 쓰고 나면 그 외에 다른 곳을 돌아볼 경제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집 안은 바깥만큼이나 추웠고, 그래서 우리 가족은 전기장판 위에서 두꺼운 옷을 입고 다 같이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못하다 보니 학원을 간다거나 책 한 권을 사는 데도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만원 상당의 수학 여행비를 내야 할 때라도 생기면 웬지 모를 미안함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어머니께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

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기에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동생도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어머니께서 짊어지게 된다면 너무 힘들어지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아시면서도 늘 밝은 모습으로 저희에게 오히려 힘이 되어 주시는 어머니를 보며 하루 빨리 돈을 벌어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 보탬이 되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13%의 상위권 내신 성적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특성화고인 대구여상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낯설었지만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생활 3년이라는 머나먼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저는 일단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학업에 충실하며 조금씩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내신 관리를 성실히 하기 위해 수업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형편이 어려워 학원을 따로 다니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수업을 들었습니다. 취업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힘이 들어 멈추고 싶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즐겁게 해보자는 생각으로 경쾌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선생님들과 학급 친구들은 제게 많은 신뢰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많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관심을 받는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내신 관리는 물론, 학교 축제, 트래킹, 동아리 등 학교 행사에도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1%의 내신 성적으로 고등학교 2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며 어머니께서도 저를 가장 자랑스러워 하셨고 저도 기뻐하는 어머니를 보며 즐겁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쏠살같이 2년이 흐르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던 3학년이 문턱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제 취업이 머지않았구나 하고 생각하면 설레기도 했지만 확실한 목표가 없었기에 조금은 막막했습니다. 그 때, 담임선생님께서 저에게 지역인재 9급 견습 직원 시험을 준비보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좋은 기회에 너무나 기뻐지만 어렵다고 소문난 공무원 시험 준비라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필기시험 준비 기간만 7개월인데 그 어렵다던 공무원 시험을 제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지, 그저 눈앞이 깜깜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저런 걱정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걱정을 앞세우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새겨두고 저는 먼 길이지만 도전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2월부터 저와 제 친구들 네 명은 매일 남아 필기시험 준비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두꺼운 책에 깨알같이 적힌 글자를 보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국어, 영어, 한국사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수업도 해 주시고 질문을 하면 친절하게 가르쳐주신 덕에 한발 한발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4~5월이 되자 지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한 명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합격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장기간 준비로 인한 위험 부담까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엄습해 오면서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이를 견디지 못한 친구가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간절해지면 간절해질수록 그 부담감이 더욱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아 힘이 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지쳐있고 그렇다고 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고민도 굉장

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시작한 일이고 끝을 봐야만 끝이 나는 거라면 저는 차라리 즐기자고 생각했습니다. 합격한 뒤의 모습을 생각하며, 기뻐하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조금 더 힘내자고. 그러는 동안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어나 서로를 격려해 가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다시 취업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말은 물론, 방학도 반납하고 공부를 해야 했지만 마냥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8월 24일, 힘들지만 나름 즐거웠던 7개월간의 긴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필기시험을 치르며 드디어 끝이라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합격자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반을 들어서는 순간, 친구들이 축하한다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아직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친구들이 먼저 확인을 하고 저를 반겨주었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 얼떨떨해하는 저의 표정을 보며 친구들은 더욱더 큰소리로 축하 해 주었습니다. 또 다시 새로운 길이 시작 되었습니다. 최종합격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지금껏 공부만 하다가 면접이라는 새로운 것을 준비하게 되니 굉장히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자신감 부족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이 떨리고 힘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런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제가 강해질 수 있도록 엄하게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시험이나 면접이나 준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힘들다는 점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제 친구가 지쳐가고 있을 무렵입니다. 작년에 9급 공무원에 합격하여 중소기업청에서 근무 중인 박유진 선배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선배를 본받아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희는 약 한 달 정도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하고



10월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최종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 전날 찾아가봤습니다. 정부 청사의 길은 굉장히 아름다웠고 멋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면접장인 중앙공무원교육원 정문 앞까지 걸어가며 부디 내일은 웃으며 이 길을 내려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되돌아오는 길에서 저와 제 친구는 정부 청사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환한 보름달이 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희는 '이건 우리만 볼 수 있는 거잖아. 좋은 징조야.'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면접시간보다 20분 정도 일찍 면접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순서라 긴장도 많이 했지만 선배님의 조언과 지금까지 한 것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실수도 하고 잘 한 것보다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면접이었지만 후회 없이 마치고 훌가분하게 정부청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면접 당일 저녁,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이 끝이 났는데 정말 여기서 다 끝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까막눈으로 발표 날짜만 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먹으려고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니 합격 발표가 나왔는데 자기가 합격했다고 환호성을 지르며 합격 소식

을 전해왔습니다.

“붙었어!”

저는 친구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에 정말 축하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다시 한 번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너 붙었어! 너 말이야, 너!”

“나?”

저는 너무 놀라 밥을 먹다 말고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명단 상단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제 이름 세 글자 ‘양은비’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전화에 대고 ‘내가 붙었어!’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구 말로는 ‘나 붙었어.’가 아니라 ‘너 붙었어.’를 말한 것이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저희는 각자 담임선생님과 그동안 저희를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전화와 문자로 합격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뻐해주신 저희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담담하게 ‘축하한다.’라고만 하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자랑스럽다는 눈빛으로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무겁던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고, 드디어 그동안 고생하신 선생님들께 보답해드릴 길이 생겼고, 드디어 친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시작도 하지 못했을 텐데, 특성화고 학생들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준 정부에 감사하고, 제가 망설이고 있을 때 한 번 시작해보라고 조언해 주신 어머니와 선생님, 옆에서 힘내라고 응원해 준 친구들, 밤늦게까지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후배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자의 자리에서 청렴하고 정직한 자세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저의 작은 행동이 지역인재 9급 공무원 후배들께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 길을 가다가 중간에 힘이 들면 주저앉기 보다는 어차피 갈 길이라면 즐겁게 가자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한발 한발 내디뎌 보면 분명 그 길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먼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먼 길을 가다보면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길 끝에 서게 된다면 이제 어떤 길도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 꿈의 기업으로 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안녕하십니까. 국립 해사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항해과 김대용입니다. 저는 스카우트 75회 <해양환경관리공단> 편에서 ‘꿈의 기업’에 입사할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제가 항해사를 양성하는 “인천해사고 재학 중”이라고 말하면 할 수 있겠냐, 힘들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꿈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참고 견디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항해사가 저의 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나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하지만 IMF가 일어나면서 아버지의 사업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가족은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외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렸던 저는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정서 불안 증

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저를 보며 항상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셨고 저 또한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많이 슬퍼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림이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으시고 저를 미술학원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원래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학원에 다녔습니다. 학원에 다니면서 저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고 화가란 꿈도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을 생각하지 못했던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각종 미술대회에 참가하여 수상 하는 등의 미술적 재능을 보였고, 어머니 또한 저의 꿈을 위하여 아낌없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응원을 받으며 ‘하루빨리 화가가 되어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디자이너라는 구체적인 꿈을 가지게 되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미술대회에 출전하여 우승하고, 각종 미술 영재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있었고,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할 생각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형편은 더욱더 힘들어졌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정부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화가의 꿈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어려운 가정형편은 큰 벽이 되어서 저의 앞을 막아셨습니다. 어릴 적 찾은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니 화가 냈고 현실을 부정하였습니다. 미술공부를 계속할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어머니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꿈과 현실을 잘 판단하여 인생을 설계하라고 하시며 고등학교 진학 홍보물을 교실에 두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홍보 책자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해양학교에 관련된 소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제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고집할 때 사실 주변에서 시쳇말로 미술을 전공해서는 생활하기 힘들다고 말들을 했습니다. 그 때마다 어머니는 제 꿈을 알기에 남의 시선을 무시하시고 제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과연 어머니에게 무엇을 해드렸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오는 것을 참고 홍보물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도 놀라셔서 “집안 형편 때문에 너의 꿈을 버리는 거라면 하지마라 나중에 후회한다. 후회 할 짓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그동안 모르는척하고 싶었던 현실을 이야기했고 “꿈은 꿈이야 나중에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지원을 결심하였습니다.

인천 해사고등학교는 국립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드는 모든 비용은 모두 국비지원이고 공부를 못해도 특별전형으로 지원하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천해사고등학교 향해 과에 입학한 후 항해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밤에도 잠을 안자고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입학했을 때 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밤샘 공부를 하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노력하여 성적도 점차 향상되었고 전교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인 인천해사고등학교에서 모든 이가 공평하게 경쟁하고 노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감에 교내외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였고 합창활동을 하면서 위문공연도 다시

게 되었습니다. 노력하면 안 될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든 열심히 하였고 어느덧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마자 저는 학교 시스템에 따라 부산으로 현장 실습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실습이라 많이 떨리고 설레었습니다. 배에서의 생활은 생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오랜 시간 있으려니 답답했고, 멀미도 참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고 좀 더 나은 나의 미래를 생각하며 참으니 점점 견딜 만 해졌습니다. 그렇게 실습을 하던 중 저에게 일생 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에서 해사고 학생을 출연시키고 싶다고 제의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지원했고 많은 지원자들 중 성적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출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역시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라는 생각을 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1차 면접을 보게 되었고 다행히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만만치는 않았습니니다. 2차 면접에서는 해양 환경 관리 공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공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사실 많이 막막했습니다.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아이디어를 먼저 내는 사람이 임자라는 조건도 있었기 때문에 빨리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중요하였습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과 연구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었고 그 중 가장 현실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선택하였습니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발표문을 밤새 준비하였고 제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는 도구도 직접 제작했습니다. 방송 출연이라는 부담감과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한다는 떨림 때문에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저를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었고 그들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발표문을 외웠고 마음을 진정 시켰습니다. 저의 발표순서가 되었고, 발표가 끝나자 허탈한 마음과 흥가분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들과 얘기하면서 기다리다보니 결과가 나왔고 저는 환호하였습니다. 1차에 이어 2차 면접도 통과한 것입니다. 어머니도 많이 기뻐하셨고 선생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떨어진 형들을 보니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결선에서는 총 3명의 형, 친구와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결선 주제는 “청정바다를 만들어라.” 이었습니다. 청정바다. 정말 막연한 주제였습니다. 저는 청정바다 즉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고민했고 작품제작시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우왕좌왕 하다 현재 사용 중인 아이디어를 개선하여 작품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작품제작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결선 과제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도 하였고, 힘을 합쳐 한 것 또한 오랜만 이어서 뭔지 모를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결선과제물로, 물위를 뜬다는 뜻의 ‘나프호’를 계획해 모형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작품제작을 도와주신 선생님은 기관과 선생님이셨기에 기술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카우트>를 하는 내내 나에게 이런 면도 있었나 하며 스스로 많이 놀랐고, 저의 새로운 능력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원리가 잘 설명되게 모형을 만들어야 했

습니다. 결선 당일, 저는 두근거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내내 대본을 외웠고 심사의원의 마음을 사기 위한 방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순서가 되어 무대에 올라섰을 때의 그 긴장감, 설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조부모님이 보시는 앞이라 더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침착하게 준비해온 모든 것을 심사의원들에게 보여 주었고, 꽤 높은 1차점수를 받았습니다. 최후의 2인이 남게 되었을 때 저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최종 점수가 발표되었고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또한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할아버지의 “고맙다”라는 말을 들으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린 것은 현실이라는 벽을 드디어 넘었다는 성취감과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과 죄송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스카우트〉 방송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고, 어머니와의 감정의 벽도 허물 수 있었으며, 마이스터고라는 제도를 통하여 학력이라는 벽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고졸, 그냥 듣기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고졸’에 대한 사회 편견을 걱정하셨고 어린나이에 꿈을 버리고 현실을 택하는 것을 안쓰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실무에서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졸의 꼬리표는 중요한 것 아니고 현실을 똑바로 보고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대학 졸업장인지, 남보다 조금 더 일찍 미래를 계획하고 출발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에는 꿈이 있었고 저를 선택한 기업에 부족하지 않는 인

재가 되도록 지금도 노력하는 자세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졸이라도 얼마든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과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현실의 벽은 정말 높습니다. 하지만 참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 벽을 넘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물론 그 길이 힘들지만 성취감은 커질 것이고 내 자신의 성장하는 기회일 뿐 아니라 가족의 기쁨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취업으로 가는 지름길은 바로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닐까요?





## 고졸 취업의 희망을 쏘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관광안내입니다. 어디 찾으세요?”

시청역 안, 광화문 광장, 청계광장, 덕수궁 앞에서 제가 매일 외치는 말입니다. 중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영어로도 이 인사를 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한번쯤 봤을 법한, 최근에 <무한도전> TV 프로그램에 ‘홍건적’으로 출연한 빨간 옷, 빨간 모자의 안내원. 바로 제 모습입니다.

“서울특별시 관광협회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김성은 관광통역안내원입니다.”제가 빨간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인사말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학교에서 익히고 배웠던 습관 덕분입니다. 간단히 저의 모교를 소개하자면, 전교생 기숙사 생활, 영어, 일어, 중국어로 구성된 관광통역학과 등이 특징인 관광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을 통해 인내심, 협동심, 배려를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 중국어의 발음도 못하던 학생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관광통역안내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관광’업종의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보고 느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의 장점 덕분입니다.

“언니, 고졸취업 어때요?” 오늘 저는 고졸취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관광고등학교 12기 관광중국어통역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고졸취업’ 학생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서울시 관광협회 의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관광통역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올해 4월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언어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공고가 있어서 신청한 곳이 바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였고,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 직업으로 통역 관광 가이드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에서 직원으로 바뀐 흔치 않은 케이스로서,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대표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에 자랑스럽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만해도 중국어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영어로 따지면 알파벳도 모르는 학생이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발음을 잘 못 해서 교실을 웃음바다로 만든 적도 있었고, 중국어 수업시간이면 책상에 엎드려 자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에서 한 중국인을 만났습니다. “학생, 영어 할 줄 알아요?”라고 묻는 어떤 아주머니 옆자리엔 아시아 여성 한 분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서툰 영어로 길을 설명하던 중, 그 여성분의 통화를 듣고 중국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기초 수준의 중국어나마 최대한 활용해 그 분께 길을 알려 드렸고, 그 분은 제 손을 꼭 붙잡고 고마워 하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사소하고 짧은 그 순간이 저를 더 공부하고 싶고, 더욱 성

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단어를 200개씩 외울 때도 있었고, 수업이 끝나고 원어민 선생님과 20분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진 않았습니니다. 그저 중국어가 좋고 중국어를 점점 즐기는 제가 좋아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잘 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겨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작년 겨울 경희대학교 주최 중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 동상을 받았고, 3학년 2학기부터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에 취업도 했으며, 올해 11월에는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제 글을 읽으시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그냥 엄마 친구 딸 이야기 정도로 들리셨나요? 저는 유학 경험도 없고, 학원도 맘껏 다니지 못했습니다. 물론 학과 특성상 남들보다 중국어를 접할 기회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는 예전처럼 일부 선택의 제 2외국어가 아니라 다수 선택의, 너무 흔한 제 2외국어이었던기에 열심히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즐기며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 나는 어떠한 것에 미쳐 있는가?

고졸 취업, 대학 진학을 떠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겐 만 가지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공부는 그 중 하나이구요. 내가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재주를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미칠 수 있는 일을 찾았을 때,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았을 때 그것이 바로 동기가 됩니다.

‘색안경을 벗으십시오.’ 물론 ‘내가 미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과감히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찾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돈을 버는 일

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현장경험과 노하우, 남들과 다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친구의 “대학교 못가면, 고졸취업이나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졸취업이 대학이라는 좁은 틈을 비껴갈 수 있는 곳인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우리 주위의 보편적인 시각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졸취업은 결코 대학교를 가기 싫어서, 혹은 가지 못해서 선택하는 ‘대신’이 아닙니다. 세상 어떤 일이든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해야 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성장이라는 아주 쓴 약을 먹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통해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각 가정, 직장에서도 고졸취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공부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이를 채우기 위해 중국어를 비롯한 외국어 공부, 관광 안내 공부 등에 밤낮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창 놀 나이에 놀지도 못하고 안쓰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즐겁습니다. 제가 원하는 분야에서, 제가 원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분명한 목적을 두고 하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선 대학을 가야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전문 관광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 취업, 후 진학’인 대학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공부한다는 자부심, 대학과 취업의 순서를 잠시 바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매 순간이 행복합니다.

학생 여러분. 제 글을 자기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봐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흔한 사람이니까요. 예쁜 옷, 멋진 곳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찾아야 할 곳은 여러분이 미래에 있고 싶은 곳입니다. 앞으로도 넘어질 일이 더 많고, 가슴 아플 일은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여러분을 분명 성장하게 해 줄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들께 제 진심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부모님들! 집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야말로, 사회에 나가서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항상 사랑하고, 응원하고, 믿고 있다고 해주십시오. 과일이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부모님의 진심어린 믿음이야말로 자녀를 성장하게 하는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 서울촌놈 삼천포로 빠져 성공하다



누군가가 “당신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끈기, 활기참, 자신감” 이 세 가지를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주부와 아버지는 하수도 준설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일은 특성상 하수도에 들어가고 추운 날씨에도 비 오는 날에도 햇볕이 쨍쨍 비추는 날도 일하는 아주 고된 작업입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를 따라 가서 하시는 일은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처음 일을 도와드릴 때가 생각납니다. 아버지는 매번하는 일이라 아무 불편 없이 모든 일을 척척 하셨지만, 저는 하수구에 꾸부정하게 들어가 깨진 곳을 확인하고 체크하여 보수하는 일, 폭폭 찌는 더위, 하수구의 고약한 냄새로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께 투정을 부리며 집에 가겠다고 떼를 부려 아버지는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철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어 잠들기 전에 꼭 일기를 써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처음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린 날 저의 일기장에는 이런 내

용이 적혀있었습니다.

‘2009년 8월 12일

집에 와서 씻으니까 이제 좀 낫다. 아빠는 왜 저런 일을 할까? 완전 막노동 갈구면…. 아빠는 나를 보고 웃으시던데 내가 힘든 게 좋은가? 방학 때 효도 좀 하려고 했는데 아빠한테 폐만 끼친 것 같네. 그리고 보면 아빠는 저렇게 지저분한 데서 일하는 게 좋을까? 아빠가 나보고 “그러니까 이런 일 안하려면 공부 잘해.” 이러셨는데, 아빠는 어릴 때 공부 안하셨나보다. 나는 옛날 아빠보다는 공부 잘하는 거 같은데…. 나름 좋은 경험이였다. 아빠가 저렇게 힘들게 돈을 버시는데 나도 그만큼 열심히 공부해야지!’

저는 솔직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기술 없는 막노동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3이 되었을 때 저는 아버지 현장 사무실에 가게 되었죠. 아버지 책상 주변에는 여러 특허들과 상장들이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나한테 자랑한적 없잖아!”

“기술자들은 그건 자랑이 아니라 보상이야.”

저는 이때부터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아버지와 같은 기능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배우는 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평소 저에게 관심을 많이 주셨던 담임선생님께서 마이스터고를 추천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항공·조선 마이스터고등학교인 삼천포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공·조선 분야로 지원한 이유는 유통 기술 중 물량을 최고로 운송하는 배, 속도가 가장 빠른 비행기, 어떻게 보면 교통의 1,2위를 달리는 이 두가지 운송 수단들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학교가 저의 가치를 높여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와서 제일 기억 남는 세 가지를 말해 보겠습니다.

1. 첫 자격증을 취득하다
2.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하다
3. 한수원에 입사하다

초, 중학교를 지나오면서 저는 공부보다는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정말 그냥 마냥 뛰어노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잘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었죠.

평범했던 소년이 특별해질 기회를 이 학교에서 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이었습니다. 1학년 초 정말 무작정 용접기능사 책을 외우며 시험 때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은 모두 참가하고 쉬는 시간마다 문제를 풀어보고 밤을 새는 날이 많았습니다. 용접기능사와 특수용접기능사 필기시험에 둘 다 넣었던 저는 둘 다 합격하는 기쁨을 만끽하였습니다. 필기 붙은 것보다 더 많이 시간을 실기에 투자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기능 연구생들이 하는 만큼 실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저의 장점인 끈기로 용접, 특수용접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능 연구생으로 발탁 되었죠. 처음에는 용접으로 들어갔지만 아버지가 배관 쪽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 배관분야 연구생에 들어가 기능을 연마하였습니다. 기능을 연마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보겠다고 다짐 하였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배관직종 입상과 학업 성적 상위 유지! 한 가지에 몰두하기도 벅찬 시간 싸움이었지만 3년 뒤 달콤함을 맛보기 위해 인내의 땀방울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22시까지 배관기능을 연마하며, 기숙사 점호 후에는 토익과 수학공부를 꾸준히 하고 새벽 2시에 잠드는 생활을 반복하며 생활



했었죠. 힘들었냐고요? 전혀요. 저의 끈기와 활기찬 성격이 지치게 하지 않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배관직종은 워낙 힘이 많이 필요한 기능이라 힘이 부칠 때는 있었습시다. 하지만 지치지 않았어요. 부족하면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은 다 갖고 있으니깐요. 저는 힘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운동시간을 늘리고, 공부가 부족하다 느껴지면 공부시간을 늘리고 하는 방법으로 모든 걸 채울 수 있었습시다. 기능인들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술과 체력을 모두 겸비해야하니까요.

3학년이 되어 지방기능경기대회 금메달을 수상하고, 경상남도 배관대표 선수가 되어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3년 간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온 몸에 기름때를 묻혀가며 노력의 결실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결과요? 노력에 비해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경상남도 최초로 배관에서 입상자가 나왔습시다. 바로 저요! 기술인으로서 자신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조그마한 실수가 얼마나 큰 후회로 다가오는지 배웠죠. 평생 가슴 속에 간직할 순간이었습니다.

2학년 때는 제 인생에 최고의 기회가 왔죠. 바로 한국수력원자력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 솔직히 저는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일은 나중에 네가 회사를 차려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한번 도전해 봐라.” 하셨죠. 그래서 저는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고 잠시 기능연구를 멈추고 마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정말 준비하고 있던 영어책을 통째로 외우다시피했어요. 그렇게 1차 시험을 치룬 날 많이 아쉬웠습시다. 못 푼 문제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한 것 같았습시다. 그래도 기뻐습시다. 진짜 열심히 했으니깐요.

1차 발표일, 정말 저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면접일보다 더 떨었습니다.

딱 합격자 조회에 들어가 수험번호를 치고 버튼을 누를 때까지 마치 100미터 달리기를 하고 난 것처럼 심장이 뛰었어요. 누르고 난 뒤 ‘합격’이라는 두 글자에 씩 웃고 기숙사로 달려가 친구들과 부둥켜안고 이불에서 막 굴러 다니면서 “내가 이제 한수원인이다!”라고 좋아하였습니다. 1차 발표 후 이렇게 ‘한수원인이다!’라고 자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감이었습니다. 초, 중학교를 거치면서 학급반장, 전교부회장까지 섭렵한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하였습니다. 정말 면접보기 전은 마치 제가 밖에서 뛰어 노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만한 나머지 면접 첫 질문부터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네 한수원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맡고 싶나?”

“저는 글로벌 원전 인력 양성 사업단에 들어가 제가 배운 기술들을 활용해서 용접, 배관, 전기 인력을 양성 시키는데 힘을 쓰고 싶습니다.”

“자네가 배운 기술이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나?”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자만했구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뭇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한수원의 기술을 익히고 배우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제 포레보다 배관에 대해 용접에 대해 전기에 대해 확실히 잘 알기에 배우는 시간은 줄어든 것이고, 이해도는 높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함께 배우는 동기들에게 도움을 주고 미래에는 후배양성에 힘쓰고 싶습니다.”라고 떨리는 입으로 말하였습니다. 면접관님들의 진지했던 표정에서 미소가 보이자 저도 순간 얼었던 몸이 사르륵 녹았습니다. 이때의 긴장감은 어릴 적 아빠한테 잘못해서 꾸중을 듣기 직전보다 더했죠. 그 다음 면접 질문은요? 솔직

히 기억이 안납니다. 너무 아찔했던 순간을 넘기고 나니 차츰 긴장이 풀려서 웃으며 대화했다는 장면만이 맴돕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는 그동안 달콤한 인생을 만들어왔습니다. 마이 스테고에서 3년간 흘린 땀방울이 굳어 인생의 소금이 되었고, 그 소금을 바탕으로 책임지고 맛난 음식들을 만들 수 있는 인생 요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2월. 방학이 다가와 학교가 어수선할 때 학생들은 벌써부터 신이 나죠. 수업시간에 영화도 보여주시고, 체육시간도 늘고, 저는 지금 뭐하며 지내냐고요? 회사에서 내 준 숙제 하느라 바쁘고, 자격증 취득하려고 바쁘고 하루가 너무 짧네요.

이 글을 읽을 저와 같은 청소년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느라 시간을 버리지 마세요. 노력의 땀방울을 믿고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한다면 저와 같이 달콤한 인생 요리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 더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멋진 인생을 꾸며나가는지! 얼마나 열정적인 기술 명장이 되어 가는지!



## 꿈을 그려주는 색연필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에는 이러한 구절이 등장한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시의 화자가 평범한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길을 택하고, 그에 따라 운명이 달라졌듯이, 나 역시도 그러한 삶이 진행 중이다. ‘고졸 취업’정책, 그리고 현재 담임선생님이신 이향림 선생님 덕분에 남들이 다 가는 평범한 길을 택하는 대신 남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길을 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살이 된 나에게 펼쳐진 두 갈래 길은 바로 취업과 대학 진학이었다. 어른들이 “요즘 시대에 대학은 필수야!”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 나는 ‘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준비하였다. 그러나 대학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점차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 시기, 뉴스에는 ‘대학의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라는 문제가 연일 오르내리고 있었다. 앞으로 계속 나의 공부 때문에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지셔야 한다



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되었다. 또한, 대학에 들어가면 4년의 시간동안 좀 더 전공분야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은 좋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4

년이라는 시간이 꼭 필요한가?’ 고민되었다. 기회비용 측면의 문제도 고려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고민을 같이 해결하고, 도움을 주셨던 분은 바로 이항림 선생님이셨다. 선생님께서는 나의 고민을 들으시고는 ‘고졸 취업’을 도전해보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주셨다. ‘취업’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나는 아직 취업하기엔 너무 어리다.’는 것이었다. 과연 누가 19살의 어린 나이에 취업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뿐더러,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그래서 처음엔 취업에 대해 겁을 먹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취업을 하면 남들보다 먼저 사회에 나갈 수가 있고 내가 배우고 싶어 하는 공학계열을 더 빨리 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실은 나를 정말 설레게 만들었다. 한 번 도전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만들었다.

당차게 그 도전에 한걸음을 내딛었지만 처음엔 정말 좌절의 연속이었다. 난생 처음 작성해 본 자기소개서와 지원서는 회사들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탈락을 이어갔다. 그럴 때마다 여러 생각이 들었다. ‘아, 나는 취업보다 대학입시가 맞는 건가?’,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더 늦기 전에 여기서 포기를 할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다 놓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실패의 쓴맛을 보고 좌절하고 있던 중, 내가 관심 있어 하던 전

기·전력분야의 회사인 ‘한국전력기술원’의 채용공고가 눈에 띄었다. 나는 ‘여기가 마지막이다. 여기서도 떨어지면 나는 취업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원결심을 하게 되었다. ‘합격이 된다면 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내 자신을 정말로 성장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하늘에서도 이런 나를 지켜보셨는지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2차 전형인 인·적성검사를 보러 갔다. 정말 떨리고 긴장했지만, 그런 마음은 감독관님이 오시면서 떨쳐 버릴 수 있었다. 그 때 감독관님은 회사 인사부에 계시는 과장님이셨다. 감독관님은 내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회사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아주 시원하게 설명해주셨다. 감독관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더더욱 ‘이 회사에 합격해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보니 운이 좋게도 또 다시 합격이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 단계는 면접이었다. 어렵게 간절한 마음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탈락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자 했다. ‘간절함과 솔직함이 내 무기이다. 진심은 누구에게나 통한다.’ 이러한 마음이 면접관님들에게 전달되었던 걸까. 나는 결국 간절함과 솔직함 이 두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최종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합격하고 처음 연수를 간 7월 22일은 아직도 내게 잊혀 지지 않는다. 처음으로 회사 38기 동기들을 만난 날이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에 입성한다는 생각에 두근두근 하면서도 새로운 집단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였다. 또한 ‘내가 고졸이기 때문에 혹시나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까?’, ‘과연 내가 잘해나갈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동기들을 만나자마자 없어졌다. 회사에서 만난 ‘동기’는 나에게 안정을 주고, 힘을 불어 넣어주며, 회사에서 ‘근무’라는 재미를 함께 나누는 운명 공동체로 다가왔다.

내가 선택한 ‘한국전력기술원’은 직급의 차이는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근무하는 회사였다. 또한, 근무 시에는 일에 열중하고 또 근무 후에는 확실히 즐기는 맺고 끊음이 확실한 기업이며, 서로서로 아껴주는 분위기의 기업이다.

첫 근무를 들어간 나는, 막상 내 자리라는 것을 가지고 보니 막막하면서 당황스러웠다. 진짜로 내 이름이 걸린 자리를 보니 믿기지도 않았고,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다른 동기 형, 누나들은 바로 업무에 투입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아직 나는 일을 받지 못하고 앉아서 컴퓨터만 하다가 퇴근하는 신세였다. 처음엔 ‘회사생활이 많이 여유롭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열심히 일하는 다른 동기들을 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난 왜 이려고 있을까? 이게 내가 꿈꿨던 회사생활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그러던 중, 나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배관-자재기술팀’의 김용환 부장님과 손영주 대리님이 회사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내가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두 분은 내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배관지식과 영문코드 등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다.

점점 나는 업무에 익숙해져갔고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는 업무를 받을 수 있었다. 선배님들의 많은 배려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회사에서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나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인 ‘고졸 취업’을 친숙하게, 또는 당연하듯이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실제로 대부분의 친구들과 부모님들은

‘고졸 취업’을 의아하다는 듯이 생각한다. ‘고졸 취업’ 정책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많은 걱정과 기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이 적게 간 길 대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걸었던 길만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기에 정해진 길을 따라가다 보면 평범한 삶을 누릴 수는 있다. 하지만, 남들은 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성공을 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후배들이나 불합격의 시련을 겪고 있는 친구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나는 언제쯤 취업이 될까.’, ‘내가 과연 취업해서 잘 나아갈까?’, ‘에이, 저렇게 하려면 원래 뛰어나고 똑똑해야 돼, 잘해야 돼.’ 하고. 이 못난 생각들이, 그들이 열 수 있는 ‘도전’이라는 문을 잠가 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성공만 있는 도전이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 또한 많은 회사의 취업 문을 두드리다가 실패도 해봤고, 좌절도 느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이라는 값진 경험을, 빛나는 10대 시절에 해보지 않는다면 그 어떤 나이에 해볼 것인가? “성공하기까지는 항상 실패를 거친다.”는 미키루니의 말처럼, 하나의 ‘실패’조차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나는 10대라고 생각한다. 나도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아, 난 안되는구나!’ 하면서 중단을 했다면 ‘한국전력기술원’ 입사는 없었을 것이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여왕의 교실>이라는 일본 원작 드라마에서 배우 ‘아마미 유키’는 이런 대사를 했다.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에 몸을 맡겨 당연히 흘러가는 삶, 한 번의 실패로 넘어져서 포기하는 삶, 너희들의 삶은 언제부턴가 재미없게 되진 않았니?”라고. 이 말은 마치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것 같다.

남들 다 가는 대학에 안가면 큰 일이 나는 줄 아는 후배들. 자기가 무엇



을 좋아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고 대충 성적에 맞춰 대학에 지원하는 친구들. 그리고 한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나는 그들에게 한 마디 남기고 싶다.

“만일 여러분의 꿈이 확실하고, 정말 그 꿈을 남들보다 빠르게 접해보고 싶다면 ‘고졸 취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발을 내딛어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성장시켜주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 ‘고졸 취업’은 제 꿈을 그릴 수 있게 해준 ‘색연필’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현재의 ‘고졸취업’입니다.”



## 응답하라, 나의 꿈!



### 북한에서 넘어오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5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삼촌, 숙모의 보호 아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여관 일을 하시면서 저는 부족한 걸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가수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악도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예술학단에 발탁되어 가수가 되기 위해 6개월간 악기 연습을 했습니다. 학단에서 생활을 하면서 방학 때 잠시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외할머니께서 중국에 있는 친척 집에 방문하러 갔다 오라고 해 설레는 마음으로 중국으로 갔습니다. 2박 3일 정도 버스를 타고 한참 가다 보니 태국의 아고강을 건너기 직전 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언어에서 혼란이 오다

한국에 도착해서 ○○○이라는 시설에 가게 되었습니다. ○○○에서 3개월간 한국 문화, 한국에서 쓰는 언어에 대해 배웠고, 지내는 동안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따뜻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쓰지만 북한에서의 언어는 한국의 60년~70년대의 단어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인터넷 활성화로 인해 인터넷 용어 및 외래어 사용이 많아 알아듣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으며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 쉼터에서의 생활

○○○의 소개로 수녀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쉼터로 오게 되어 쉼터에서 가까운 ○○고등학교라는 일반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일반고등학교에 입학할 해 학교생활을 하는데 아직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 수업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적응하기 힘든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한국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었고 그러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너무 착해 많은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저에게 많은 관심을 주셨습니다.

1년을 그렇게 지낸 후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의 진로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는 돌봐주시는 부모님도 계시지 않아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도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살수 없는 상황입니다.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40만원의 보조금이 나오는데 졸업을 하게 되면 보조금이 지원 되지 않습니다. 저는 ○○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태권도, 영어 공부, 피아노 등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졸업 후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해야 할지, 나의 기술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수녀님과 많은 상담을 통해 직업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직업학교의 학과들을 살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면서 미용과에 대한 장단점을 스스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부터 어른들로부터 손재주가 있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미용을 배우면 나중에 졸업해서도 나의 기술로 평생 직업을 가지면서 한국에서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의 정보와 도움으로 ○○학교 미용예술과에 입학하여 미용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 제2의 서막이 시작되다.

저는 ○○학교에 추가로 합격해 다른 친구들에 비해 한 달 정도 진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서툴렀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수업을 따라가기 많이 벅했습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께서 방과 후 시간에 저를 위해 교실에서 진도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충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해시켜주시고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자격증 실기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에 먼저 합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험문제를 읽고 해석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OMR카드라는 것이 없었던 탓에 답안지 작성법도 잘 모릅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치르는 시험을 보고 나면 그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미용사 자

격증 필기시험에 대해 좌절하고 있을 때 선생님들께서 12월에 학교에서 필기면제로 의무검정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 줄 알았습니다. 필기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 지나고 학교에서 실기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는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아트 수업을 합니다. 저는 졸업 후 저의 모습을 생각하며 다른 학생들에 비해 몇 배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론수업과 실기수업을 성실한 자세로 임했고, 방과 후에도 남아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난 후 담임선생님께서 ○○뷰티대회가 있는데 한 번 참가해 보라고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직 배우고 연습한 지 2달 밖에 안 되었고 아직 대회에 나갈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담임선생님께서 권유해주신 대회에 경험 삼아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대회기간까지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연습해서 퍼머넌트 웨이브 부분에 참가해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탄 금상이었기에 제 자신이 뿌듯했고, 한국에 와서 자신감을 잃고 있었던 저에게 활력을 넣어주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에 맞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담임선생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자기 피붙이와 같이 소중한 것을 끊어내고 무슨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미용을 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널린 유혹, 친구 그리고 한 순간의 즐거움들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많이 힘들 것입니다. 다행히도 선생님은 여러분의 가족을 끊어내는 고통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것이 꿈을 이루는데 첫 번

째로 해야 할 행동입니다.”라고 말씀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실제로 누군가에게 뒤통수 한 대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껏 말로만 ‘힘들다. 힘들다’ 하고선 정작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머릿속에 겹치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무슨 일을 성취하고자 할 때는 그에 걸맞는 노력과 노력이 수반되는 희생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속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모른 체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대회를 나가면서 다시 한 번 느꼈고 담임선생님께도 매우 감사했습니다. 대회를 치르고 학교에서는 메이크업 자격증 시험 준비에 들어가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메이크업 3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제가 졸업 후 필요한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인 미용사(일반) 자격증입니다.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저희 반 친구들 가운데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서 떨어지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조금 할 줄 안다고 시험 보러가서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슬럼프에 빠졌던 이유는 아직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과 비교를 많이 하면서 의욕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선생님께서 해주신 말들을 상기하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도 남아 열심히 연습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한국말을 듣고 이해하기에 너무 부족해서 자격증 연습 후에는 항상 교감선생님과 함께

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취업을 해서 손님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님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담임선생님께 많이 의지를 했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며 충실히 학교 생활에 임했습니다.

### **미용인으로써 첫발을 내딛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이제 제가 취업할 곳을 알아봤습니다. 현재 저를 돌봐주시는 부모님도 안계시고, 취업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쉼터에서 나와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졸업 후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담임선생님께 상담을 하니 기숙사가 있는 미용실이 있으니 그 곳을 알아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여기 저기 미용실을 알아봐 주셨는데 대학생들이 먼저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담임선생님께서 기숙사 있는 미용실을 알아봐주셔서 면접을 봤고 ○○동에 있는 ‘○○ 헤어’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직책은 스텝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손님맞이, 샴푸, 염색, 퍼머넌트 약 도포 후 와인딩, 약품 재고 정리, 손님 배웅 그리고 청소입니다. 미용실에서 일이 끝나면 청소하고 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남아 마네징에다 퍼머넌트, 세팅, 드라이, 아이론 연습을 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남아 연습을 하고 집에 가면 11시. 항상 녹초가 되곤 합니다. 또한 미용실에서 하루 8시간 서서 일하는 것이 처음에는 적응이 되지 않아 힘들었지만 3년 후 손님 머리를 직접 손질하는 유능한 헤어 디자이너가 된 저의 모습을 생각하니 마

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헤어디자이너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제 이름을 가진 ‘윤○○’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의 꿈이여 비상하라!**





## 고졸 취업 성공의 세 가지 비결



흔히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선택을 앞두고 고민이 많지만 저에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특성화고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그리 풍족하지 못한 가정형편은 저희들에게 당연히 특성화고에 진학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만들었어요. 부모님에게 만만치 않은 학비 부담을 털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택시운전을 하는 아버지는 피곤에 지친 몸으로 퇴근하셔도 우리 형제를 보면 웃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형제가 잘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버릇처럼 말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넉넉하게 뒷바라지를 해 주시지 못하는 상황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또 매일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시는 어머니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이런 일 저런 일 마다하지 않고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부담을 줄까봐 애써 미소를 짓곤 하셨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기에 우린 학교 선택

에 다른 여지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어디를 가야한다고 말씀은 안하셨지만 우리들의 특성화고 진학에 대하여 특별히 반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2011년도 제가 사는 파주시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인 세경고에 저와 쌍둥이 동생은 입학원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과에 원서를 넣고 불안하게 결과를 기다렸는데 다행스럽게 모두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학한 얼마 뒤 제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1학년 60명 중 마지막 순번 즉 꼴찌로 입학하였음을 알았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같이 자신감에 차 보였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저와 제 동생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꼴찌라니 어떻게 할 것인가?’ 갑자기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겁이 덜컥 났습니다. ‘꼴찌’라는 딱지가 나에게 붙어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난관을 이겨낼 방법은 없나?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어요. ‘성공하는 청소년의 7가지 습관’이라는 프로그램 수업 눈에 번쩍 뜨이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을 주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비로소 나의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어렵פות이 방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꼴찌를 하지말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마침 학교에 방과후 학교, 대학생 멘토링, 군 메토링, 야간자율학습, 학습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교 50등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멘토인 대학생 형으로부터 스터디플랜을 새우는 방법을 배우고 계획을 세워 자신 있는 과목과 자신 없는 과목을 나눠서 공부하였습니다. 자신 있는 과목은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하는 학습방법을 사용하였고, 자신 없는 과목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어보는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나와의 지겨운 싸움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꼴찌로 입학한 제가 3년 후인 현재 종합 성적이 300명 중 37등(11%)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도전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신시켜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ITQ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인터넷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국제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통해 ICDL(Internet Computer Driving Licence)자격증 4종목과 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 2종목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환경은 내가 만들어 가는 주도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 것이 이렇게 표출되는구나!

셋째,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꽃동네 봉사활동,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신생아 모자 뜨기’ 우리 지역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해비타트 ‘사랑의 집고치기’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연탄 나르기’ 등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웃과 소통하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소외된 90%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연구하는 ‘착한기술연구반’ 동아리에

가입하여 그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경험하면서 작은 발명품 1개를 만들었습니다. 뜻밖에도 발명한 ‘편리한 정수기’가 창의체험페스티벌에 선정되었고 고양시 킨텍스에서 작품 전시도 하였습니다. 또한 소외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작은 기술을 알려주면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저는 봉사정신과 책임감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3학년이 되면서 구체적인 나의 진로 찾기를 위해 고민했습니다. 어떤 진로를 찾을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 담임선생님과 여러 차례 상담을 하고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담임선생님이 권유하신 공무원이 제게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성격이나 생활습관, 집안 형편 등을 잘 아시는 선생님은 제게 공무원을 적극 권장하셨습니다. 분야는 전기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선택을 한 이상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가장 관련이 있는 전기기능사자격증까지 취득하였습니다. 방과 후에는 공무원 시험과목인 물리와 전기 교과목을 중심으로 학습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SG 취업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공무원으로 가져야할 마음가짐과 이력서 작성법,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취업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해 주시던 선생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시험장에 입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시험에 응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긴장하거나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대로 담담하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이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기쁨보다는 ‘아, 이렇게 꼴찌의 딱지를 떼는구나’ 하는 생각에 흥분했습니다.

저는 광명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인생

을 설계해야 되겠지요.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저를 키워준 부모님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끊임없이 자극을 준 학교와 선생님을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스타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항상 봉사하고 부지런히 뛰면서 감동을 주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가르침 그대로 배려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항상 섬기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 정말 공무원다운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길을 열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어떤 분야든 골짜기가 있다면 오히려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으니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노력으로 미꾸라지가 용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육환경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특성화고인 세경고등학교에 입학한 것 자체가 바로 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02

#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

제2회 고졸취업 감동수기 공모전 졸업생 부문









## 인생은 B(Birth)와 D(Death)사이의 C(Choice)다!



### 어머니와의 이별, 특성화고는 나의 희망

제 나이 고작 열네 살,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을 때 하나뿐인 어머니는 담낭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른 채 금방 회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이미 어머니의 병세는 담낭은 물론 담도와 간 등 다른 장기까지 전이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고 1차, 2차, 3차를 거쳐 거듭되는 견디기 힘든 치료에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과 앙상하게 말라버린 어머니의 팔다리를 보며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2년 동안 제 죽음보다 가족들을 걱정하시며 암과 투병하시던 어머니는 끝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모질게도 남겨진 가족이 느낄 슬픔을 위로할 시간을 주기보다 생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암 치료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아버지께서는

어머니 간호로 인해 그만두셨던 건축 관련 일용직 일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집안의 큰딸로서 취업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 선 취업 후 진학, 부모님께 전하는 말

우리의 부모님들께서는 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길 원하실까요? 삶을 살아오며 학력의 차이 탓에 어떤 차별이나 손해를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차별과 손해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중한 자녀만은 그런 상황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대학으로의 진학을 당연한 절차로 여기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에 가는 걸까요? 의사나 변호사처럼 대학 졸업 후 국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한 전문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친구들이 학문을 탐구하기보다는 졸업장을 위해 자신의 진로와 관계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취업의 질은 학력의 차이가 아닌 기회의 차이로 일어납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30~40년 전과 달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도 잡히는 명확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바로 '선 취업 후 진학'입니다. 2011년부터 고졸 취업이 활성화되기 시작되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질 높은 취업처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학교나 기업에서도 변화와 보완을 시도하면서 고졸시대의 장래는 더욱 밝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 취업 후 진학의 최대 장점은 바로 능률적이라는 점입니다. 직업을 갖고 진학할 전공을 선택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연구한

다는 점에서 시간과 경제적 낭비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취업을 위해 준비했던 과정

현재에 만족해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만족감에 취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점점 퇴보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자기계발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인 학업에 열중함은 물론 학급의 반장, 학생회 선도부원, 학교 홍보대사 활동 등 다양한 교내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금융·회계 동아리에 들어가 전산회계 1급을 비롯한 펀드투자상담사와 은행텔러 자격증을 취득했고, 교내회계경진대회에 참가해 대상을 받는 영광과 ‘광주 상업정보실무능력 경진대회’와 ‘전국 상업정보실무능력 경진대회’에서도 입상하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 KDB산업은행에 지원하다!

첫째, 서류전형은 상위 5% 이내의 학생을 추천받고 자기소개서는 지원 동기, 나의 경험, 나의 활동, 입학 후 계획을 기술했습니다.

둘째, 필기전형은 서류합격자가 치르게 되고 상업경제, 회계원리, 금융상식 분야의 객관식 60문항과 주관식 8문항, 약술형 2문항으로 이루어지고 논술 문제는 일반 시사를 다룹니다. 저는 한 포털사이트의 해킹 사태에 관해 서술하는 문제였는데 포털사이트의 해킹으로 인한 소송의 법적 효과와 포털사이트의 해킹 해결 방안, 자신이 소송에 참여할 때 어떤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할 것인지를 서술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1차 면접은 1박 2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 면접, 인성검사, 실무

자 면접, 팀 프로젝트는 첫째 날 6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둘째 날 체육 면접은 피구, 애드벌룬, 파이프로 공 옮기기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셋째, 2차 면접은 임원진 면접이었습니다. 인성 위주의 면접으로 실무진 두 분과 임원 세 분의 면접관과 면접자 5명이 치르는 多:多 면접이었습니다.

## 나의 미래비전

산업은행 합격을 위해 달려온 3개월은 긴장감 때문인지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3학년 1학기를 산업은행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보냈습니다. 서류전형, 필기전형 및 논술, 1박 2일 이틀에 걸친 1차 면접, 2차 임원면접을 거쳐 마지막 신체검사와 신원조회까지!

너무나도 합격하기를 원했던 산업은행이었지만 채용과정에서 힘이 들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성숙해지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은행 신입행원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스무 살을 앞둔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학생의 모습에서 벗어나 사회인의 면모를 보이고,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사람이 되길 바라신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해 절차탁마(切磋琢磨)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되어 실천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매일 밤 했습니다.

취업하기까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점이 있다면 저 자신이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점입니다. 각 학교의 쟁쟁한 친구들이 모여 정말 우수한 인재만을 가려내는 자리, 그 사이에서 더욱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자라났습니다. 그 끝에 최종 합격이라는 열매가 더욱 달콤하게 느껴졌고 모두들 그랬으리라 여겨집니다.

마냥 멀게만 느껴졌던 첫 출근을 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아직 한참 실무를 익혀야 하고 모자라지만 1년이란 시간 동안 제법 직장인다운 티가 생겼습니다. 이제 정말 신입이 아닌 경력직이 된다는 것이 낯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고객님께서 원하는 서비스를 내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지, 선배님과의 대화를 나눌 때는 또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직무가 익숙해지면서 영켜있던 실타래 역시 하나 둘씩 풀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조언을 얻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언어, 태도, 사회 생활에 대한 지혜를 배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해석하자면 인생은 Birth(탄생)와 Death(죽음) 사이의 Choice(선택)라는 의미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한 선택도, 약간 이른 나이에 사회에 뛰어들 것인 것도 내가 내린 결정이며 선택인데 이에 대해 전혀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4년도에는 선 취업 후 진학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 진학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요즘 이에 걸맞게 전문지식과 실력을 겸비하고 전공지식, 현장경험과 같은 실무에 대한 이해를 두루 섭렵해 경쟁력을 갖춘 금융 강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할 든든한 파트너로서 '여성 금융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어머니께 결코 실망시켜 드리는 일 없는 훌륭한 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 특성화고 인생 역전기



지난 12월 19일,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당선자께서는 스펙초월 청년 취업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이 공약의 취지는 젊은이들이 열정과 창의성이 있으면 학력이나 토익점수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이스터고, 폴리텍대학교를 늘리고, 고졸채용 확대를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도 고졸 취업정책에 대해 많은 것들을 추진해 오셨는데 지난 봄에는 마이스터교로 개교한 우리 학교에 양건 감사원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학생회장이었던 저는 감사원장님의 바로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당시 감사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본의 학자가 <일본은 망했다>라는 책을 썼는데 일본의 대학 진학률이 40%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책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0%가 넘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등을 제외한 실질적 취업률은 1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 손실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런 무분별한 대학 진학은 고쳐져야 할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시절 저녁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주변에서 공부의 중요성도 강조했지만 억지로 책상에 앉아 있다 보니 그저 그런 성적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기계에는 관심이 많아 집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제가 드라이버로 해체를 해보았는데 다시 조립하면 나사가 몇 개씩 남는 안 좋은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관심 분야이며 실습활동이 많은 기술 시간만큼은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말고는 별다른 취미가 없어서 학교에서는 존재감도 없고 미래에 대해선 막막한 생각밖엔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공부하기 힘든데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시 공부를 할 생각을 하니 중학교 3학년 시절은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여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었습니다.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인 연무대기계공업고등학교에 입학을 결정하고도 처음에는 몹시 겁이 났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무시무시한 형들이 학교를 쥐어 잡고 있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에 입학하여보니 중학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평범했습니다. 입학 후 처음 치룬 중간고사에는 기계관련 분야의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기술시간에 보

있던 것들도 많았고 처음 보는 시험이니 잘 보기 위해 중학교 때보다 열심히 공부를 하였는데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을 받았는데 처음 받는 장학금이라 굉장히 뿌듯하였습니다. 자신감이 생기자 다양한 방면에 도전을 하였고, 각종 글쓰기 대회, 영상 만들기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학년 때 영상 만드는 것에 특히 관심이 생겼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신 미술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애니메이션동아리에 들어가 적극적인 지도를 받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렇게도 하기 싫던 공부였는데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공부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마침내 도 대회까지 나가서 수상하였고,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충청남도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제치고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기숙사 생활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많아지자 악기를 하나 다루고 싶어졌습니다. 방과 후 음악동아리에서 피아노를 연습해 전교생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던 터니 교장선생님의 추천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수여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장학금 백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급우들에게 장학금을 나눠 주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전교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저의 모습에 저 자신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학생회도 잘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에 자신감이 붙고 공부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대학진학에 필요한 것들 영어, 수학, 물리를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스스로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갖게 되었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니….

그러던 중 2012년 5월 충청남도에서 고졸 공무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험과목은 기계일반, 기계설계, 물리로 특성고등학교학 생과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위한 특혜였습니다. 물리는 이미 공부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고, 전공과목은 학교 수업시간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걸 신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험 공고를 확인한 후 오직 공무원시험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방학 때에도 기숙사에 혼자 남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을 자며 악착 같이 공부를 한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개인택시를 운전하시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 후 아버지가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아버지는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택시를 팔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15년이 넘게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그것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한방에 없어진 것 같다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해맑은 웃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 3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이천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들어간 돈은 반에 반도 안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외가 친척 어른 중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삼촌이 있는데 지금 나이가 34세라고 합니다. 공무원 합격 평균 나이가 30세 정도 인데 아버지는 제가 그분들보다 10년은 앞서갔다고 흐뭇해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 역시 효도를 다한 것처럼 즐거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에 특성화고

등학교에 진학하려는 저를 신뢰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바뀌셔서 동생도 저의 뒤를 따를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니 중학교 시절에 비해서 바뀐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중간 아래였던 내신등급이 고등학교에선 모두 상위권으로 바뀌었고, 중학교 때는 봉사상 밖에 받지 못했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받은 상장은 35장이 되었습니다. 가전제품 해체 말고는 아무 취미도 없었는데 지금은 수영, 복싱, 기타, 피아노등 다양한 취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도 받고 학생회장도 하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국가를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 로또복권에 당첨된 기분이에요.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적도 모르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빠른 자동차가 있는데 속력이 300Km/h를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빠른 속력으로 달리는 뛰어난 자동차인데 핸들이 없다면 자동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관심을 끌고 있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는 고학력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먼저 갖고 평생 학습의 차원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좋은 제도인데 저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틈틈이 공부하여 제 인생을 윤택하게 가꿔 갈 것입니다.

말의 주인이 강가에 가서 말에게 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이 물을 먹기 싫다면 주인이 억지로 밀어도 안마시면 그만입니다. 말이 목이 마

르다면 주인이 끌고 가려 해도 말은 강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 할 것입니다. 말이 자신이 좋아하는 물을 마셨다면 힘차게 달릴 것입니다. 저 역시 제가 좋아하는 물을 흠뻑 마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힘차게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학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장점을 살려 취업하고, 평생 공부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처럼 공부하고 남들이 가는 대학이니까 나도 따라 가고, 대학을 나왔으니 연봉이 많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얼마나 오래 학교에 다녔는가 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연무대기계 공업고등학교에서의 3년 동안, 꿈은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는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공무원 임용 후보자가 된 이상 앞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평생 공부하며 더 많은 땀을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학력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도록 저의 작은 힘을 보탬 것입니다.



## 모래 속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



어딜 가나 딸을 자랑스러워하며 미소 지으시는 아버지. 그 모습은 제가 너무나도 꿈꿔왔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글을 쓰기 전 미리, 20년 만에 아버지의 흐뭇한 눈웃음을 볼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유난히도 애교가 많아 부모님께 듬뿍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고등학교 원서접수를 앞둔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부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특성화고에 가보는 건 어떠니?”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가려면 당연히 인문계고등학교에 가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였고, 오히려 내신공부를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에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수가 걷는 길이 되어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나에게 없는 단단한 의지도 키울 수 있겠지요.

고민 끝에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에 결정했습니다.

## 수많은 모래들과 어울리는 방법

처음 입학하던 날, 친했던 친구들 모두 인문계 고등학교에 갈 때 홀로 그 옆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등교했습니다. 인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성직임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였지만, 주변의 좋지 않은 시선 때문에 괜한 열등감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특성화고에서도 더 잘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의 삶에 대해 노력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부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권하여 도에서 주관하는 상업, 창업경진대회 등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참여의 장이 많아 졌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할 기회도 늘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들을 자산이라 생각하고 참여했습니다. 경력도 쌓고 승리와 패배를 맛보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생활 자세 덕분인지 '1학년 부회장'을 제안 받게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자리라 고민도 많이 하였지만, 이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생각에 곧바로 도전하였습니다. 학교생활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축제나 간부수련회 등 학교행사를 직접 계획하고 실천했습니다. 선생님과 선, 후배 등 사람 간의 관계형성의 중요성도 배우며 유익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저에게 힘든 상황은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 난 어떤 모래가 될까?

아버지께서 서울로 이사를 계획하셨습니다. 큰 도시로 가서 안목을 키우

며 세상을 넓게 보는 것이 좋겠다고요.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아버지는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접고 어머니와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먼저 상경하였고, 저와 아버지 그리고 대학교 졸업을 앞둔 언니는 살던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에 집에 돌아오면 공부를 하시는 아버지와 언니는 제에게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2학년 회장’ 선거철이 다가왔지만 저는 집 상황을 고려하고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포기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대학에 대한 열정으로 입시 하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중살림과 오래된 실업으로 인해 나날이 집 안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인식한 저는 대입의 꿈을 잠시 접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학년이 되어 가족들은 전부 서울에 올라갔고, 저는 기숙사에 홀로 남아 취업준비를 하였습니다. 취업을 하겠다는 결정은 했지만 막상 제 주변을 둘러보니 이를 위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세울 것이라고는 고작 몇 개의 자격증뿐이었습니다.

가슴속에 커다란 바위가 쌓여있듯 답답하였고 눈앞이 캄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 자신을 복돋아 가며 마음을 다시 바로 잡았고, 내가 가진 장점을 하나 둘 찾으며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취업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고배를 마시고 슬럼프에 빠지던 찰나, ‘한국공항공사 인턴모집’ 공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스펙도 스펙이지만, 인성을 많이 보는 기업이었습니다.

회장경험이 있던 저는 그 경험을 토대로 가진 것들을 보여주었고, 그 경험이 회사의 문을 열게 하여 인턴의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 인턴사원에서 다시 취업 준비생으로

19살. 다들 수능 공부에 바쁠 때, 저는 회사에 들어가 사회초년생으로 갖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라는 울타리에서 나와 막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민 저는 우물 안에서 나온 개구리처럼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호기심이 많던 저는 도전과 실수를 통해 사회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팀원 분들은 고졸취업을 한 저에게 관심을 주셨고, 그렇게 인턴생활을 하면서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열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노무복지팀에서 업무를 맡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간단한 통계, 타 공기업의 복리후생 현황비교 등이 전부였습니다.

간단한 일이지만,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더듬더듬 생각해내면서 하기 시작했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면 학교선생님께 몰래 SOS 신청을 하며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맡겨진 일이라고는 간단한 일들뿐이지만, 하나의 막중한 사명을 받은 듯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내에서 고졸인턴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자를 뽑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좋은 기회였고, 같이 근무하던 인턴 친구들과 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했던 것인지 2차 최종면접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합격한 친구들을 보며 저는 낙심하였고 응원해주셨던 주변 분들을 보게 될 때면 미안하고 창피했습니다.

그렇게 좌절의 시기를 겪었을 때에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느끼는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공부를 시작하시고 주무실 때까지 공부하시는 어머니와 살림을 위해 거친 업무를 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제가 알던 1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계셨습니다. 눈 마주치

기도 무섭다고 생각했던 위엄 있으셨던 배불뚝이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들이 생겼고, 어머니께서는 공부 스트레스로 인해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더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회사 입사에 필요한 필 기시험 등의 공부를 하며 다시 찾아올 기회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더욱 더 매달렸습니다. 두꺼운 상식 책 2권을 사서 책 끝이 닳도록 반복하여 넘겨보았고 저녁에 집에 와서는 한국사공부를 하였습니다. 결국 한국사능력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틈틈이 공부한 덕에 전문적인 자격증 회계 관리 2급도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자신감이라는 빛을 발견하다.

정부의 지속되는 취업 장려로 인하여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시험을 볼 때마다 결과에 대한 가슴 떨림을 느낄 수 있었고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불합격에 대한 담담함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합격통보를 받았을 때는 오히려 담담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이어 현재는 타지에 홀로 있는 저를 팔처럼 아껴주는 팀장님을 모시고 부산 고객센터시스템에서 근무를 하는 중입니다. 스무 살. 어리다고 하면 어린 준비가 덜 된 미성숙한 나이지만, 어쩌면 남들보다 먼저 시작해서 경험하고 대비하는 출발점에 서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졸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살아갈 80년, 아니



이제는 길어진 100살 중에서 스무 살은 뭐든지 실패해보고 경험해보는 기회의 나이입니다. 저는 인턴생활을 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열등감도 있었지만 나에 대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자신의 환경 탓을 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믿고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여러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자신감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모래알 같기만 하던 여러분의 가능성은 어느새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는 history, 현재는 Present, 미래는 mystery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자신의 인생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 고마워요, 특성화고



###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을 발견하다

2009년 중학교 3학년 가을, 오직 인문계 진학이 목표였던 저에게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해 준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 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선배는 인문계고등학교에 입학해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선배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자신의 꿈에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다며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평소 제가 갖고 있었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편견이 사라짐과 동시에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편견을 깨다

고심 끝에 특성화고등학교인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저의 결심을 밝혔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은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고 하면서 제 결정을 바꿔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아버

지의 반대가 정말 심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편견이 심하셨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대학에 진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간다고 학업을 게을리 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꿈을 이룰 수 있는 더 다양한 기회가 있고, 원한다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던 아버지께서도 제가 확고한 입장을 보이자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저의 선택을 지지해주셨던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반에서 5등 이상으로 등수를 올리기 힘들었던 제가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디지털경영과 1등으로 입학했습니다. 꾸준히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점점 커지는 자신감과 책임감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생활하며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는 다른 학교 분위기와 취업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대기업, 금융권에 취업하여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이루고 나중에 대학에도 진학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저도 1학년 때부터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쉽지 않은 만큼 최선을 다해보자

1학년이 끝나갈 무렵 학교에서 ‘금융회계동아리’를 신설하게 되었고, 1학년 가운데 3명에게 입회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의 추천으로 감사히도 제가 이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금융자격증 공부가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방학이나 공휴일에도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에 등교하여 함께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다시 1시간

거리를 이동하여 금융자격증 학원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사실 처음 들어 보는 금융자격증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뿐더러 합격률이 20%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인 내가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담당선생님께서 ‘쉽지 않은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고, 그것을 얻게 되었을 그 때를 생각해보렴.’ 이라는 말로 격려를 해 주셨지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결과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은행텔러, 회계 자격증까지 모두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자 앞으로 무슨 일이든 도전해서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 도전, 그리고 이루어낸 한국전력공사 입사의 꿈!

2학년 겨울방학 무렵 첫 취업원서가 도착했고, 등곳길에 한국전력공사를 보며 입사의 꿈을 키웠던 저는 바로 원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서류와 인적성 검사에 합격한 후 최종면접을 앞두고어요. 평소 목소리가 작고 조용한 성격이라 면접 준비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잘 되었던 자기소개 발표도 선생님 앞이면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제 목소리와 표정에서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집뿐만 아니라 반 친구들, 또 다른 반에 가서 면접 연습을 계속해가며 자신감을 키워나갔습니다. 드디어 면접 당일. 아침 일찍부터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고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면접장 입구에 도착했어요. 약 한 달간 매일 준비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면접이 바로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니 눈이 내리는 추운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



램과 두근거림 때문에 추위를 느낄 새도 없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키도 크고 정장을 짝 빼입어 마치 ‘오피스레이디’ 같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키도 작고 교복을 입고 온 저는 잠시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자신감 있게 면접에 임한 결과 꿈에 그리던 합격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합격 통지를 받은 날은 학부모 총회 날이었는데, 부모님과 선생님께 합격 했다고 말씀드리자 함께 기뻐해주시며 따뜻하게 안아 주셨어요. 그때의 기쁨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 사회에 내딛는 첫 발자국

저는 ‘채용 확정형 인턴’으로 입사하였는데, 5개월간 인턴생활을 마치고 정직원이 되는 전형을 거쳤습니다. 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3학년 여름 7월 15일에 첫 연수를 마치고 사회생활에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고졸 사원을 처음 채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혹시 학력이나 나이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진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죄송할 정도로 선배님들께서는 업무를 잘 알려주시고, 동생, 혹은 딸처럼 대해주시면서 제가 잘 적응 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5개월간의 인턴기간을 마친 후, 한국전력공사의 정직원이 되었고 저는 다른 신입사원들처럼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근무지는 광주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완도'였습니다.

정직원이 되니 업무나 생활면에서도 인턴 때보다 엄격해지고 저에게 책임을 요하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용어도 생소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면에서도 힘들었습니다. 또 학교가 아닌 직장에서의 생활, 특히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 때문에 고통의 무게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1학년 겨울방학 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때,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간절함을 생각하면서 업무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종종 주말에도 회사에 나오며 고객응대나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17일, 한국전력공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한지 일 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반대하셨던 아버지께서 큰 딸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씀해주시면서 입사 1주년을 축하해주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평소 엄격하신 팀장님께서 '처음엔 다 헤씨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요즘엔 내공이 많이 생긴 것 같아 보이네요. 불평하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말로 격려를 해주셨어요. 한국전력공사는 학력 때문에 승진에서 장벽을 경험하는 일이 없고, 고졸 사원으로 입사해도 4년이 지나면 대졸 사원과 같은 연봉 등급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선배님들께서도 업무에 조금 익숙해지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대학 진학에 도전해보라고 말씀해주시는 등 많은 조언을 해주십니다. 대학에 갈지 취업 할지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과감하게 취업을 선택한 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선배의 조언으로 좋은 선택을 한 것처럼 제 글을 읽고 누군가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 가시밭길을 꽃밭으로 만드는 법



여러분이 지금 걷는 길은 꽃밭인가요? 가시밭인가요?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에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길을 꽃밭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으며, 그 방법은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가 걸었던 가시밭길을 꽃밭으로 바꿀 수 있었던 방법과 저의 취업스토리를 잠시나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 중학교 3학년, 가시밭길에 ‘긍정’이라는 씨앗을 뿌리다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진로가 확연히 달라지는 중학교 3학년, 누구나 그렇듯 저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를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정형편으로 인해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하여야 했고, 내가 원하는 길과는 다른 길로 가야한다는 사실에 부모님과도 많이 다투고 잠시지만 우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



고 부모님의 독려로 부정적이었던 저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한 후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를 가리라!'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계 고입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반배치고사를 준비하였고 장학금을 받으며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앞에서도 나의 마음가짐 즉, 긍정적인 생각 하나가 힘든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가시밭길을 꽃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긍정’과 ‘열정’으로 꽃밭을 가꾸어 나간다

고등학교 입학 후 제가 내신을 열심히 쌓았던 것은 취업을 위해서가 아닌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제 발길이 취업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내가 왜 대학교 진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데 '더 많은 것을 배워서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취업을 하면 어떨까?'저에게 던진 이 질문에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취업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취업을 준비하던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저의 스펙이 부족하여 입사원서를 작성하는데 자신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칸이 몇 개 없었습니다. 수도 없이 불합격 문구를 받으며 상처도 많이 받고 많이 울면서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는 힘든 상황을 이전에도 겪어봤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시 도전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마음을 컨트롤 하면서 다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금융기관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원

서를 넣을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가시밭길을 꽃밭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열정’이라는 거름을 추가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2~3일 동안 수업시간을 빼서 하루 종일 컴퓨터실에 앉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피드백을 받기 위해 선생님 옆에 쪽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서류전형에서 합격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열정을 첨부하여 도전을 하니 그에 대한 보답이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차 면접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면접 날까지 약 2주 동안 다른 교실에 홀로 앉아 토론면접, 개별면접을 연습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주시는 토론주제에 찬성과 반대의견을 쪽 적어 혼자 주고받으며 토론연습을 하고 개별면접은 필수질문 5개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면접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최종에서 떨어졌지만 그만큼 나를 위해 투자했던 시간과 열정만큼은 아깝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도전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 꽃밭에서 찾은 ‘나의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준 한국장학재단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취업준비를 하면서 많은 곳에서 불합격이 되긴 했지만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정형편으로 인해 가고자 하는 길을 걷지 못하고 꿈을 접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랐고, 저 또한 그 심정을 잘 알기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장학재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을 운영하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입사하면 저도 함께 학생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 입사원서를 넣으며 제가 왜 이 회사에 입사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인지 어필하였습니다. ‘열정’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부족한 저의 스펙을 커버해주었고, 그 결과 한국장학재단에 입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나를 변화시켜준 ‘긍정’과 ‘열정’

‘잠깐의 좌절이 있을 뿐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울지 말고 그 상황에 적응하며 살아가겠다. 그 상황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겠다. 힘내자!’ 제가 중학교 3학년 힘들었던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적었던 일기 내용입니다. 힘든 상황 앞에서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시밭길을 꽃밭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곳에 지원하고 떨어지면서 가시밭길을 걸었지만 결국에 그 가시밭길을 꽃밭으로 만들며 당당히 한국장학재단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저는 ‘모교방문 멘토링’이라는 사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긍정’과 ‘열정’으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였는지 등에 대한 취업수기에 대해 멘토링을 하였습니다.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한가지입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이 길이 가시밭길이 되느냐, 꽃밭길이 되느냐는 자기 자신이 결정짓습니다. 지금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달리 보일 것이고 열정적으로 도

전하면 그 길이 어느새 꽃밭으로 바뀌어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꽃밭으로 만들기 위한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기업을 내 품 안에



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한 교사셨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누며 저에게 힘을 주시던 아버지는 제가 어린 시절, 갑작스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려워진 가정형편에 굴하지 않고 삶에 대한 희망을 다잡으시며 2남 1녀의 교육에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볼 때 노력해 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성적은 매번 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수 년 간 학습된 무기력을 짊어지고, 꿈도 희망도 없이 새로운 환경이자 제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인, 상업계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와 집을 쳇바퀴처럼 오가며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매년 천안 지역에서 열리는 '이봉주 흥타령 마라톤 대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의 일은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선수들이 마실 음료를 정리하고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음료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었

습니다. 대회가 끝나 갈 무렵, 한 눈에 봐도 장애로 몸이 불편하신 중년의 아저씨 한 분이 저 너머에서 결승선을 향해 뛰어오고 있으셨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 분의 표정과 몸짓에서 ‘삶의 무게를 기필코 견디어야 한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저씨는 제일 마지막으로 결승선에 도착하셨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기쁨으로 충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최선을 다하자.’라는 결심이 섰습니다. 이후, 저는 학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기초가 부족했던 저는 홀로 일어서기까지 걸음마 단계에서부터 남들보다 느리지만 차근차근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도중에 포기할까 생각도 했었지만, 놓치고 싶지 않은 목표를 잡았기에 최선을 다해 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성적은 많이 올랐고 단기간이었지만 노력의 결과로 우등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노력의 결과로 처음 받는 상이기에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전산회계 실습과 관련된 교과 수업시간에 담당 교과 선생님께서 저를 실습 보조학생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 실수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된 적도 많았습니다. 나의 과오로 인해 친구들이 피해를 볼까봐, 저는 집에서 혼자 전산회계 책을 사고 실습 연습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조교 활동을 한 것은 회계 교과목에 커다란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교과목에 대한 자부심 또한 생겼습니다.

하지만 3학년이 다가올수록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미래와 진로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저는 학교와 생님들이 강조하시는 ‘취업의 중요성’에



관심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학교 내 동아리로 ‘취업사관반’이 만들어졌습니다. 방과 후 시간은 물론 방학 내내 학교에 나와서 금융 관련 자격증을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직업교육부장선생님도 틈이 나는 대로 삶의 자세에 대한 조언과 사회생활에 대해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기초적인 실무능력부터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아리 내 친구들과는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전문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함께 공부했습니다. 서로 잘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에 관해 조언을 했고, 저의 단점을 고쳐나갔습니다.

취업을 전담 선생님들께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지도 받으면서 취업에 대한 저의 목표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생각보다 힘든 교육 과정과 훈련으로 많은 친구가 도중에 동아리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좋아하는 회계 과목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취업에 대한 정보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렵다고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 도전해보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낫다’라는 신념으로 끝까지 저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 준비할수록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제29회 무궁화 배

전국학생 실무 능력선수권 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상을 받기 위해 추운 겨울방학에도 동아리실에 나와 모르는 문제를 함께 풀고 서로 격려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어디서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추억이었고 함께 협동하여 무엇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습니다. 단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점수가 중요하였기에 친구들과 다함께 항상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몹시 추웠지만, 친구들과 서로 의지하며 추위를 이겨내었습니다. 회계 자격증 취득과 전국대회준비가 동시에 진행되어 긴장감은 두 배가 되었습니다. ERP 자격증도 취득하고, 입상도 하는 값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3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취업을 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전쟁터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증이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은 물론, 방과 후 시간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자격증 취득에 전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필요로 한 인재상은 물론, 회사 업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라는 공기업부터 공략했습니다. 첫 도전인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당연히 붙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패배감을 맛보았습니다.

좌절과 절망적인 감정은 쉽게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수 없이 많은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계속되는 '불합격' 통보에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지고 매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믿고 기다



려준 선생님과 가족들에게 항상 죄송했습니다.

취업 후반기인 10월 말까지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심적인 고통으로 3월보다 체중이 15Kg이나 감량되었습니다. 외형적인 변화도 생겨서 평소 취업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포기하지 말고 다음 공기업 합격을 위하여 준비해.”

선생님들의 후원에 힘입어 용기를 냈습니다. 저의 생활신조인 ‘후회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말을 되새기며 마지막으로 근로복지 공단에 제 인생을 걸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번만큼은 가족과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에게 ‘합격’이라는 단어를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등교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관한 자료도 수집하고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서류통과, 2차 시험까지 통과하였습니다. 정말 기뻐지만 방심할 수 없었고 겸손한 자세로 다음 시험인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아끼고 생각해 주신 주변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면접 날, 저는 새벽 기차를 타고 가장 먼저 면접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면접 장소에 일찍 도착하여 얼어붙은 몸도 녹이고, 성실히 준비를 하면서 저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나왔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신조답게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고 결국 근로복지공단 ‘최종합격’이라는 뜻 깊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맙게 느낀 것은 바로 저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가족, 선생님,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두 저를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03

#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

제2회 고졸취업 감동수기 공모전 성인 부문







## 세 명의 담임교사가 이뤄낸 특별한 기적



이OO 학생의 첫인상은 매우 거칠고, 반항아적 기질이 다분해 보였으며, 공부와는 담을 쌓은 것 같았습니다. 반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십은 있지만, 욕설도 잘하고 매사가 부정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선생님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검고, 거친, 단단한 바위 같은 이OO. 이것이 OO에 대한 저의 첫인상이었습니다.

1학년 때는 욕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해 친구와 싸우다 창문을 부순 적도 있고, 학교 못 다니겠다고 매일 같이 담임선생님께 자퇴를 허락해 달라고 조르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임선생님이었던 권희순 선생님이 설득과 또 설득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2학년에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된 OO는 죽순이었던 대나무가 가파르게 뼈대를 형성하는 것처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학년 때에 비해 한층 더 밝아졌고 어른을 무섭고 어려워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교무실에 와서 넉살 좋게 선생님들과 농담을 하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변한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친한 친구조차도 OO의 속마음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해도 항상 눈은 축축이 젖어 있고, 인생에 관한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잡은 지각과 무단결석으로 인해 2학년 담임선생님과도 매일매일 전쟁이었습니다. 워낙에 거친 녀석이었기에 예쁜 말로는 OO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면 다시 1학년 때의 나쁜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아 2학년 담임선생님이었던 김재찬 선생님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선생님과 제자가 아닌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호되게 꾸지람을 해야 하는 상황에는 다소 거칠게, 확실하게, 무서운 형처럼 혼을 냈으며, 칭찬을 할 때는 친형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담임선생님이 자신에게는 관심 없고, 그냥 혼내기만 한다고 생각했지만 진심을 다해 조언해주는 담임선생님의 마음을 읽고 그렇게 무사히 3학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3학년이 되어 저와는 담임교사와 제자의 관계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칠기만 했던 OO은 그동안 1,2학년 담임선생님 덕분에 많이 사회성을 기르게 되었고 예전에 비해 인내심도 늘고, 상황 판단력도 생기고,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위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배웠던 터라 무난히 3학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KBS 1TV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에서 ‘CJ 비비고 입사’를 두고 도전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종례 시간에 반 아이들에게 공고하여 희망자를 받았습시다. 많은 아이들이 너도나도 하겠다고 손을 드는데, OO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항상 수업시간에 까불거리고 장난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가만히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전 당연히 OO가 나서서 도전 할 것

이라 생각했는데 희망하지 않아 종례 후 따로 상담을 해 보았습니다.

“OO는 지원 안 할 거니?” “네” “왜?” “선생님 저 진짜 요리가 좋아요. 하지만 자신이 없어요. 전 요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비해 실력도 별로고, 스펙도 별로고, 가정형편도 별로잖아요”

OO의 대답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고, 리더십 있게 행동하면서 정작 그러한 행동이 본인의 단점을 감추기 위한 행동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오기가 생겼습니다. OO에게 요리 실력도 별로고, 스펙도 별로고, 가정형편도 어렵지만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졸업하기도 전에 좌절부터 배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더 많은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희망과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OO를 설득했습니다. 너의 악조건 속에서도 ‘꿈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도 우승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제 말에 본인도 도전의식이 생겨 결국 ‘스카우트’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미션인 ‘예선’을 준비했습니다. OO는 다른 아이들처럼 자격증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요리 실력이 뛰어나서 큰 대회에서 상을 받아온 적도 없고, 외국어는 물론 이거니와 성적도 좋지 않았던 학생입니다. 다른 학생들은 파워포인트에 자기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어 2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OO는 1페이지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예선에서 떨어질 것 같아 OO와 저는 ‘OO 장점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기억에 남는 것,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등등 OO의 장점을 찾으

려고 2시간 동안 대화를 했으나 변변찮은 대답뿐이었습니다. 한숨을 한 번 쉬고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네 보물은 무엇이니?” “통장이요!”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19살 밖에 안 된 남자 아이가 통장이 보물이라고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통장이 자신의 보물인 이유는 아르바이트비가 들어오면 핸드폰비, 버스비, 식비 등이 통장내역에 찍히고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이 어려운 가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꾀꾀이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 대견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보물이고, 또한 돈이 모이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 돈으로 아버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기쁨에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OO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 헤어진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OO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었고 그로인해 그렇게 통장에 애착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으스스대고 잘난척하는 모습 뒤에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자 하는, 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효자인 OO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션의 컨셉은 ‘통장’으로 잡았습니다. 자격증, 언어, 대회수상, 경력 등의 칸은 모조리 지워버리고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의 증거인 ‘통장’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는 스카우트에서 1등하는 것이 승리이며 성공이라면 OO에게는 삶이었고, 거친 세상을 견디고 헤쳐나갈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다행히 OO는 면접관들에게 내가 느꼈던 감동 그대로 줄 수 있었고, 무사히 본선 그리고 최종 결선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막강한 요리 실력자들을 제치고 우승까지 하게 되어 현재 비비고(광화문점)에서 취업 후 열심히 일을 배웠고 벌써 1년 차 요



리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비비고 관계자들을 통해 OO의 합격이유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OO의 우승이유는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본선을 치루 던 때였습니다. OO는 ‘쭈꾸미연저육짬’을 준비해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촬영이 지연되면서 OO의 음식들이 식어서 고기는 딱딱했고, 뜨거울 때 먹어야 하는 매운 소스는 멍멍해져 있었습니다. OO는 그때 자신이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잠깐 촬영이 멈추고 최종심사 중간에 설거지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OO 학생은 탈락되더라도 요리를 위해 사용한 이곳은 깨끗하게 치우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열심히 설거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지나가면서 중앙에 놓고 쓰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건드려 바닥에 쏟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어찌지 하며 발발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갑자기 OO가 바람 같이 뛰어나가서 장갑도 안 낀 맨손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너도나도 와서 담기 시작했습니다. OO는 요리수업 시간에도 깨끗한 실습실을 위해 더러운 오물을 거리낌 없이 나서서 청소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수업중의 행동이 습관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간 것입니다. 나중에 대회가 끝난 후 비비고 관계자들이 OO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고 대견했다고 하셨습니다. 요리 실력이 모자라면 입사 후 가르칠 수 있지만 봉사정신과 희생정신 즉 인성부분은 쉽게 배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업현장에서 선배들과 생활할 때 필요한 능력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는 “효도하겠습니다”가 인사 일 정도로 ‘孝’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1학년 입학 전부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인성의 중요성을 배우고 관련 교육을 3년 동안 받았던 OO는 자연스럽게 봉사과 희생정신이 습관처럼 몸에 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OO를 위해 수시로 1,2,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3년 동안의 성장 발달 사항, OO를 교육할 때의 유의점, OO에 대해 알아야 하는 점, OO를 설득하는 방법 등을 서로 공유했고 진급시켰다고 끝이 아닌 그 학생이 끝까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세 담임선생님들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학교와 선생님들의 노력 끝에 자퇴할 뻔한 OO는 다시 학교로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희순 선생님이 그때 그냥 자퇴를 시켰더라면, 김재찬 선생님이 그냥 결석을 하도록 두었더라면, 그리고 제가 OO의 말에 귀 기울이고 관심 갖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OO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학생이 꿈을 찾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일은 한 명의 교사보다 전교사가, 그리고 학교 모두가 푹푹 뭉치면 더 쉽다는 것을 OO 학생의 변화를 보며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OO를 포기하지 않았던 1, 2학년 담임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는 제쳐두고 인성교육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의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스펙 쌓기’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한 나머지 인성교육의 부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펙도 인성이라는

시금석이 있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의 목표는 인성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으면서 실력까지 겸비한 학생 양성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 2의 OO 학생이 생겨나고 그것을 후배들이 본받게 되어 서로 봉사하고 사랑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



특성화고등학교의 사계절은 매순간 치열하다. 봄이 되면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저마다 진로에 관하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자기와의 긴 싸움을 기약하는 학생들이 있다. 우리 학교의 아이들도 다르지 않다. 다양한 꿈과 짐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진학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은 교육과정과 취업을 향한 암담한 불안함으로 학교를 믿고 의지하며 교육과정과 선생님의 인도를 택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길을 따라가다 보면 특화된 교육과정 가운데서 자기의 장기와 적성을 조금씩 파악하게 되고 그렇게 구슬땀을 쏟으며 뜨거운 여름을 지나 비로소 3학년이 가을과 겨울을 맞는다.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 가을이 돌아오면 제각각이던 봄의 새싹들이 어느새 자라 어떤 모습으로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가을의 축복 앞에 어느 계절보다 혹독한 겨울을 만나기도 한다.

보통교과 교사인 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전신인 실업계고등학교에 임용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학교의 자랑은 아이들이라고 자부해왔다.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인 친구들은 근로자의 날 만면에 미소를 띠며 교문을 드나드는 졸업생의 이야기나 일찍 사회인 되어 서로의 고충을 친구처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낯설어 한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참 행복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이들은 특성화고 아이들 상당수가 결손가정이거나 가정형편이 안 좋다고 치부하기도 하고, 학교생활도 마지못해 적응하고 금전적으로 부족해서 취업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일부 맞는 말이지만 그건 어느 학교에나 해당될 수도 있고 표면적인 수치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가려진 결과일 뿐이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아이들은 나를 가르치고 성장시킨다. 오직 좁고 한 길만을 고집하고 모험보다는 안정을 추구해온 나는 우리 아이들만큼 자신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시도를 해보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학교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최신 자격증을 학습시키고, 사회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점차 높은 수준의 교육과 각종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한다. 나 같으면 시도조차 겁냈을 것들을 아이들은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따라왔고, 결과는 언제나 기대 이상이다.

그들은 어느새 성장하여 공기업과 금융권, 대기업의 새내기가 되어 있고,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의 동료들에게 사랑을 독차지하는 막내 사원이 되었다. 10개 이상의 자격증은 성실의 증거이고 성적과 출결은 기본이라 담담하게 말하며, 사람과 직업의 귀천은 없다는 진리를 증명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성장한 대한민국 고졸취업의 대표 희망이며, 앞으로 우리 미래를 짊어질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인생의 오디션에 합격한 특성화고 아이들이다.

상업학교의 역사와 함께 하신 선배 선생님들은 요즘이야말로 예전 실업 계고등학교의 황금기 같다고 말씀한다. 그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펀드 투자상담사 같은 자격증의 출현과 이를 취득하는 학생들이 있을 만큼 우리 사회와 학교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성인인 나도 이해하기 힘든 과정을 이수하고 이력을 하나씩 늘려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新고졸 채용의 열린 시대’가 더없이 반갑다. 그리고 여기 가장 이기기 어렵다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승리한 용감하고 자랑스러운 두 아이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한다.

우리 학교 교문에 들어서면 인고와 노력의 시절을 이겨낸 빛나는 이름들이 걸리어 있다. 그 가운데 금융감독원 2년 연속 석권의 주인공 상선이는 2학년 때 담임으로 만났고 올해 합격이 있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상선이는 자기를 소개할 때 우유부단하고 결정력, 끈기, 적극성, 활발함, 전달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과도한 겸손이 지나쳐 사실 같지 않지만 상선이는 한때 그랬었다. 수업시간에 질문하면 솔직함이 지나쳐 차갑게 느껴졌고, 가끔은 대화중에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침침한 눈빛과 난청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은근과 끈기는 남달랐다. 돌아보면 침침한 눈빛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책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유물이고, 가끔 멍한 표정으로 물은 것에 엉뚱한 대답을 했던 것 또한 자기 안에 갇혀 지낸 시간이 그만큼 길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 그런 상선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있는 일은 자기 안에 퐁퐁 숨겨둔 유머와 착한 고집, 집중력과 자신감, 자기 색깔을 믿고 내보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조용히 속삭이는 상선이의 목소리가 큰 울림으로 터질 그날을.

우수한 성적과 훗날의 외모, 다수의 자격증, 방학도 거부한 시계추 같은 움직임, 언제나 순응적인 모범생 상선이는 자신의 이력과 성격답게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정진했다. 그러나 현실과 사회는 자꾸 스스로를 깨고 나오기를 강요했고, 그럴수록 내성적인 상선이를 움츠리게 만들었다. 사회가 원하는 인재는 창의와 혁신으로 도전적이어야 한다. 이런 사회에 도전장을 낸 상선이도 여러 번 실패하였지만 분명히 하나씩 얻어오는 것이 있었다. 2차 면접에서 사시나무 떨 듯 하여 말할 기회조차 없이 떨어진 한국전력, 논술시험에서 시간배분을 잘못하여 떨어진 산업은행, 1950년 6.25전쟁을 1956년도라 당당하게 발언하여 최종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던 상선이가 달라졌다.

자기소개를 하려면 외운 멘트에만 집착하던 아이가 한국전력에 다녀온 후 눈을 맞추며 자기를 표현하고 자연스러운 미소와 여유를 찾았다.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에 확신을 갖지 못해 당황하던 아이는 산업은행에 다녀온 후 자신을 믿고,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좋은 글과 의견을 판단할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되었으며, 정상에서도 자만심이 자칫 실수를 유발하게 된다는 겸손함을 경험으로 터득하였다.

산전수전 끝에 심전에 이긴 그 끝에 금융감독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과정의 결정판인 900자 분량의 16개 항목의 1차 자기소개서는 기본이고, 2차 인적성 시험, 논술 시험, 3차 개별면접, 4차 집단 면접의 긴 터널 끝에서 포효하듯 합격의 함성을 지를 수 있었다. 경기도 유일의 남자 합격생,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합격, 누군가는 평범한 모범생 남학생의 비범한 성장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비범함 뒤에는 긴 시간 성장통을 견디며 참아낸 은근과 끈기의 승리가 진정한 교훈이 될 것이다.

입사하기 전까지 남은 십대의 학창시절을 만끽하고 있는 상선이는 요즘 자기 성장 이야기를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후배들 앞에 서서 “앞으로 ‘사회’라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실패가 나열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실패를 몸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으며, 여전히 부족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저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삼일상업고등학교의 아들로서 금융감독원의 중심이 되어 나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특강을 마친 상선이에게 나는 오늘도 한 수 배웠고 한 뼉 성장한 우리가 느껴진다.

그리고 여기 또 한 명, 선물 같고 때로 스승 같은 제자가 있다. 상선이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무색할 만큼 모두가 인정하는 노력파. 아기 같이 선한 눈망울과 가녀린 목소리, 여성스러운 외모의 소유자 민서가 그 주인공이다. 역시 2학년 담임교사와 제자로 만난 민서의 흐트러진 모습을 한 순간도 본적이 없다. 목표가 생기면 그날부터 모든 촉각을 집중하여 몰입하여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의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반성하게 만드는 근성 있는 모범생의 전형이다.

과도하게 활기찼던 우리 반 아이들도 민서의 집중하는 모습에는 숙연해질 정도였다. 조회와 종례 시간에 입을 꼭 다물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한 바를 행동으로 그대로 옮겨 살아 주는 그 아이는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구역 청소 담당을 맡았을 때도 품행이 남달랐다.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법이 없었던 민서는 같이 청소하는 친구가 오지 않아도 항상 같은 시간에 그 길목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담임교사인 나의 뿌듯함을 넘어 교장선생님의 시야에 들어왔고, 묵묵히 지켜보시던 교장선생님께



서는 전교생을 대상 조회시간에 민서의 공로를 치하해 주시는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렇게 완벽한 민서의 중학교 시절 성적은 중간 정도에 머물렀다고 한다. 우리 학교에 진학하여 우연히 시작이 좋았고 그때의 자신감이 노력과 민서를 만들었고 꿈이 생겼다고 말했다.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민서에게 내가 했던 역할은 노출이었다. 자기의 잠재력을 있는 힘껏 끌어올리느라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좋은 말과 기억해야하는 어려운 이론을 기억하며 고난이도의 자격증을 취득하느라 바빴던 민서의 매력을 남들에게 선보이고 싶고, 그 인정이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심부름을 시키고 교무실에서 민서의 이름을 크게 부르곤 했다.

3학년에는 담임을 맡지 않았지만 내 마음 속에 스타 민서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며 가까이서 지켜보며 기도했다. 그러나 민서의 계절은 상상 그 이상으로 가을을 생략한 채 겨울로 달아났고 참으로 혹독했다. 흔히 우리는 잦은 시행착오와 좌절을 맞는 사람들에게 七顛八起(칠전팔기)라 위로하지만 우리 민서는 공기업만 열여섯 번을 도전한 끝에 한국공항공사에 합격의 기쁨을 맛보았다. 그리고 그 합격 소식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오늘은 고졸취업 감동 수기 제출의 마지막 날이자 크리스마스 전날이고 민서는 우리의 선물이다.

이 수기의 제출을 망설이게 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민서와 불과 몇 시간 전 낮에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민서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 우리 민서를 알아보는 행운의 기업이 곧 나타날 거야.” 그 동안 겪은 그 많은 시행착오의 경험은 처음은 눈물로, 그 다음은 오기로, 그리고 이젠 단련되고 여유로 발효되었는지 민서는 “저 좀 뻘뻘해졌어요. 잘 되겠죠? 그렇게 믿고 기다

려봐야죠.” 이렇게 우린 다져졌고, 기다림을 배웠다.

합격의 눈물을 펴펴 쏟은 민서와 방금 통화했다. 나는 비로소 민서에 대한, 민서를 위한 수기를 마무리 할 수 있겠다고 말했고, 민서는 이 수기를 읽는 이들에게 자신의 수많은 시행착오의 원인은 철저한 마음의 준비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학창시절도 넘지 못한 각 기업들의 서류전형 다음으로 정례화 된 인적성 시험에 대한 실력과 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1차 서류전형만 통과 되어도 교무실 여기저기서 박수와 기대가 쏟아지는데 민서는 그 환희의 순간에도 2차 시험에 대한 불안과 거의 일 년을 싸워왔을 것을 생각하니 대견하고 역시 민서다움이 가슴을 뜨겁게 했다.

나는 학교의 자랑 금융감독원 이상선과 한국공항공사의 김민서로 기억하고 싶지는 않다. 그들에게 더 잘 어울리는 수식어는 속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영뚱하기에 그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인생과 사회를 축구의 축소판이라 생각하는 의지의 청년 상선이로,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 강건하게 대처하여 크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유연하지만 그 속에 강함이 진정한 강자임을 몸소 보여준 불굴의 의지 오뚝이 민서로 오랫동안 문신처럼 새겨질 것이다.

가끔 아이들이 교과서로 배운 이론대로 따라와 주지 않을 때, 나는 할 수 없으면서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그 순간은 어디론가 숨고 싶을 때가 있다. 그 순간 부족하고 성장 진행형인 나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존재는 단연코 아이들이다. 살아있는 교과서로 나날이 새로운 희망의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하고 한편의 다큐멘터리처럼 생생하게 인생의 희로애락을 몸소 보이며 자신을 극복하고 비상하기도 한다. 기꺼이 나를 그들의 인생의 가장 순수한 순간에 초대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지금 이순간이 바로 일 년을 기다려온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닐까싶다. 그리고 아직 풀어보지 않은 선물들이 대기 중이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가을과 겨울은 그렇게 지나고 있다. 다가올 봄에 만나는 아이들에게도 나는 아이들의 눈망울과 마주하며 또박또박 말할 것이다. “넌 착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소중한 사람이야.”라고 말이다.



## 특성화고 선택? 잘했군, 잘했어!



별아가 첫 월급이라며 내복과 용돈을 내밀던 날 하염없이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아직 스물도 되기 전 사회에 딸을 보내고 그 딸이 주는 용돈을 보니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편치만은 않더군요.

우리 별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늘 공부 잘 하고,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않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학교에 상담을 하러 가도 늘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갔고, 돌아오는 길에도 담임선생님의 많은 칭찬에 딸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교문을 나오곤 했죠.

그런데 3년 전 특별한 상담요청이 있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입시상담, 사실 당연히 인문계를 가서 대학에 가리라고 믿고 있던 터라 입시문제로 담임선생님의 상담 요청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교문을 들어선 저에게 담임선생님께서 별아가 특성화고에 진학하겠다고 했으며 잘못된 결정이 아닐까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별아는 수학 학원을 다니며 정말 열심히 진학 준비를 하던 차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별아의 진로를 생각하면서 한 번도 특성화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지 않았거든요.

저녁에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별아 언니가 다니는 특성화고를 별아가 가겠다는 말에 다른 가족들도 처음에는 저처럼 놀라더군요. 먼저 별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별아는 자기의 성적이 80명 중에서 6등인데 과연 인문계 가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얘기와 특성화고에 가서 내신 성적 관리를 잘 하면 오히려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시작했다고 하며 별아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 가족의 고민이 전해졌는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별아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별아는 언니를 따라 논산여상에 다녀왔습니다. 교장실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학교의 교육과정을 설명해 주셨고, 좋은 대학에 진학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더군요. 그 당시 논산여상은 특성화고였지만 몇몇 학생들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나 충남대 등과 같은 국립대학에 진학을 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교장선생님께서 수학 전공을 하시고, 별아가 입학하면 수학을 손수 봐 주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별아와 저희 가족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별아 아빠와 저는 그래도 인문계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미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며 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자식들만큼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갖겠다 싶었고, 전문직을 갖고 행복하게 사는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시골에서 전교생이라고 해야 약 80명 정도인 작은 중학교에서 6 등, 이 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과연 내신 성적이 얼마가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을지, 대학 졸업 후에 최종적으로 취업은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등등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결국 별아에게 선택권을 넘겼습니다. 어린 딸에게 너무 큰 짐을 준걸 잘 알면서도 사실 진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없었던 저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별아는 특성화고에 진학해서 내신 성적 관리를 잘 해 수시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했고, 그날 이후 더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가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저희 부부가 마치 자식의 미래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처럼 말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별아는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전체 수석으로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장학금 통지서를 손에 받아들고도 잘 한 결정인지 아닌지 자랑스러운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별아는 입학 후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수학은 교장선생님께서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함께 방과 후에 특별 수업을 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수학 학원도 끊고 내신 성적 관리를 하며 최선을 다하는 별아가 한없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2학년이 되자 별아의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3학년 선배 언니가 기업은행을 들어갔다며 별아도 취업을 하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군요. 자식만큼은 대학을 보내야 하는 줄 알았고, 그게 부모의 도리인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취업 얘기를 듣고 보니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바로 위에 언니가 대학 진학은 했지만 취업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고졸 취업에 대한 열기를 보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도 별아랑 같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별아는 공무원이 되겠다며 국어, 영어, 한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보며 저희는 묵묵히 별아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별아가 3학년 취업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인터넷 강의를 듣던 별아는 대기업과 공기업에 추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던 날 ‘역시 우리 별아가 최고야’라고 생각했고 취업 문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취업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1차 서류에 합격한 별아가 면접을 보고 합격 발표 날이 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신 성적은 좋았지만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지 못했고 남들보다 뒤늦게 시작한 취업 결정이 별아에게는 악재가 되었던 것이지요.

공기업에 떨어지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고 그런 별아를 지켜보면서 저희 부부는 특성화고에 보낸 걸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여러 번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별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다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거울 보면서 면접 연습도 했고, 저희 부부가 면접관이 되어 예상문제를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한주택보증(주)에서 채용공고가 나오고 별아가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적성검사, 한국사, 회계원리 시험을 보았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며 한국사를 배워 나름 유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번 불합격 경험에 위축된 별아를 보는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아픈 경험을 하게 되진 않을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별아는 또 얼마나 힘들어 할까? 이

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필기시험을 보고 온 날도 별아의 얼굴은 별로 환하지 않았습니니다. 그저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묵묵히 지켜 보는 거 말고는 부모인 저희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문득문득 인문계를 보내지 않은 후회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더군요.

필기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도 별아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습니니다. 대한주택보증(주)이 원서로는 8번째, 면접으로는 4번째였으니까요. 설사 필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면접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안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최종 합격 발표가 있던 날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시간 1시간 얼마나 가슴을 조였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전화 왔습니니다. 그런데 별아가 “엄마” 하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펄펄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 걱정하면서도 지난번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는데 “합격이에요.” 하더군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저도 울고 별아도 울고 우리 모녀는 펄펄 울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힘들었던 기억과 합격이란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기쁜 마음에 방앗간으로 달려갔습니니다. 맛있는 떡을 해서 학교에 갔습니니다. 우리 별아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무엇으로라도 보답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학교 교문을 나서는데 현수막에 걸린 별아의 이름이 보이더군요. 『도별아 대한주택보증(주) 합격』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별아는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를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밤늦은 시간에도 혼자 인터넷 강의를 들으



며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방학 때도 특성화고 다닌다고 놀 거를  
이 없었습니다. 교과 공부에 자격증 취득까지 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별  
아는 대한주택보증(주) 합격 후 신입사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대  
전지사 발령을 받아 회사 근처에 있는 기숙사에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TV에서 보던 커리우먼처럼 멋진 사무실에서 단정하게 근무복을 입고 근무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기숙사를 포함한 모든 근무환경  
이 부모인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전 추수지도를 다녀 온 담임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수학  
을 잘 했고 열심히 했던 덕분인지 회사에서도 숫자가 들어가는 업무를 너  
무 잘한다는 칭찬을 전해주셨습니다. 물론 컴퓨터도 잘 하고, 여러 가지 업  
무를 꼼꼼하게 잘 처리한다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칭찬한 애  
기도 전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딸 별아가 한없이 자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특성화고에 보냈다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 저희를 부  
러워하십니다. 요즘처럼 대학을 졸업해도 변변한 직장을 잡지 못하는 현  
실에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겠지요. 3년 동안 저희 부부는  
'특성화고 선택? 잘했군, 잘했어!'란 말을 듣기 위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  
습니다. 그 기다림의 긴 시간동안 별아는 밤낮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며 공  
부했고, 드디어 행복한 결실을 얻었습니다.

별아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직장  
에서 인정받는 사원이 되기 위해 부족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갈 것입  
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잘 활용해서  
몇 년 후에는 사이버 대학이나 야간 대학에서 더 깊은 학문을 연마하기 위

해 대학진학도 꿈꾸겠지요. 그렇게 별아의 꿈 너머 꿈이 멋지게 펼쳐지기를 기도하며 저희 부부는 사랑하는 딸에게 끝없는 찬사와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 "명곤아, 네가 나의 스승이야"



교육이란 미성숙한 존재를 성숙한 존재로 이끌기 위한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정의를 내리지만, 때로는 교사 역시 미성숙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 준 학생을 교직생활 8년 만에 만났습니다.

작년 9월, 미술실에서 2학년 4반의 첫 미술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수업시간의 마침종이 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미술실 문이 열렸고, 환한 미소를 가진 남학생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4반 유명곤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명곤이는 쭉 매시간 제일 먼저 미술실에 와서 맨 앞에 자리를 잡곤 했습니다. 미술에 큰 재능은 없지만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남자라며, 주어지는 미술 과제마다 진지하게 임하는 명곤이가 18살 남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참 귀엽고 예뻐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올해 저는 명곤이의 3학년 담임교사가 되었습니다. 봄방학이 시작되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명곤이에게서 한국J공사

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공공기관의 입사... 명곤이가 목에 힘을 주어 얘기했습니다. 욕심을 내어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공공기관 및 영어토론 동아리 지도 선생님들도 자기소개서를 봐주시기는 했지만,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저의 감수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향인 대구에서 휴가 중이었던 저는 이메일로 자기소개서를 받기로 했고, 그 안의 내용들을 읽고 나서 이 아이의 매력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화려한 수상실적과 다양한 종류의 대외활동도 훌륭했지만,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적힌 그 아이의 포부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한 간단한 지적 및 조언과 함께 명곤이의 담임선생님이 되어 참으로 기쁘고, 앞으로의 1년이 정말 기대된다는 메시지를 함께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영○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는 전교 1, 2등을 다투는 학생입니다. 영○ 역시 한국J공사에 지원하고 싶다고 자기소개서 감수와 함께 제출해야할 서류를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로 서울로 출발했고, 오후가 되어서야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닫힌 교무실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영○를 발견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셔서 막막해서 연락했다며, 휴가 중에 올라오시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 영○에게 “그래,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올라왔다. 대신 최종합격하면 봐 준다~.”하며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더 영○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등의 당연한 표현에 인색한 요즘 아이들과 달리 영○는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학생이었으며, 우수한 성적만큼 인품

도 일색이라는 것을 느꼈기에 새 학기와 새로운 학급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져 갔습니다.

영○가 쓴 자기소개서를 읽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모바일 로봇틱스 분야의 기능대회에 학교 대표로 출전했으나 입상하지 못해서 좌절했던 이야기부터, 재개발지역에 위치한 작은 빌라형 원룸에서 생활하던 중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새었을 때 수도관에 호스를 연결하여 집 안쪽으로 끌어난 경험까지 아주 솔직하고 당당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고, 힘든 상황을 타기기보다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밝고 건강한 생각을 가진 영○의 강인함에 순간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약 한달 정도 후 서류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영○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쁜 목소리로 저에게 핸드폰에다 대고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방금 연락받았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제 옆에 있던 선생님들까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영○는 갑작스러운 장천공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되었고, 수술도 생각해야하는 상황이라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겨울 방학 때부터 몸무게가 급속도로 빠지며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영○의 아버지는 취업보다 영○의 건강이 우선이라며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영○는 전형일에는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외출 허락을 받아낼 것이고, 수술은 면접 이후로 미루겠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결의를 보였습니다. 영○의 강한 의지와 용기가 너무 기특했고, 공공기관 동아리 지도 선생님과 함께 병원을 오가며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인·적성검사부터 면접까지 매 전형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마침내 4월 4일 늦은 오후, 영○는 한국J공사 최종 합격 연락을 받았고, 영○의 합격은 2013년 학교를 빛낸 첫 취업 소식이 되었습니다.

영○의 인적성검사 및 면접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동안 학급 학생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J공사 서류전형에 탈락한 4명의 학생들은 눈에 띄게 위축되어 있었으며, 그 중 명곤이는 말을 걸기가 어려울 정도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누구보다도 강한 학생이기 때문에 ‘실패’라는 경험을 인정하고 스스로 이겨내기를 바라며, 저는 그냥 묵묵히 뒤에서 응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의 최종 합격 소식을 반 학생들에게 전하면서 영○의 합격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여러 번의 실패를 이겨내고 얻어낸 결과이고, 교사가 되기 전 4번의 실패 후에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저의 경험담을 풀어놓으며 학생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쪽 저에게서 완전히 고개를 돌려 창문 너머만을 응시하고 있는 명곤이가 신경이 쓰였지만 그냥 힘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교실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명곤이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무직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조립도 해보고 싶고, 음... 생산직이든 뭐든 다 지원해보고 싶어요.”

순간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네 성적이면 충분히 좋은 곳에 입사할 수 있어. 왜 갑자기 약한 모습 보이는 거니. 누구나 다 실패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동안 꺾꺾 참고 있었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저도 모르게 표출되었습니다.

“왜요? 직업에 귀천이 없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도덕적 명제를 내세우며 반문을 했습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계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제 머리 속에 자리 잡은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성적이 낮은 사람들의 상관관계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형성된 것이었을까요? 종이 치는 바람에 마무리를 지어야 했습니다. 아니, 종이 치는 덕분에 저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명곤이와 반 학생들에게 해줄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급하게 정리하고 나왔고, 교무실로 와서 한참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숙제를 덜한 것 같은 짹짹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고, 결국 종례까지 아침에 나는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회시간에 명곤이에게 어제 나는 대화에 대한 솔직한 생각이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TV 프로그램 「이야기쇼 두드림」에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대기업만 고집한다는 실태를 꼬집는 강연자의 말을 듣고 낮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명곤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나중에 자리를 잡으면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말을 평소에 자주 했던 사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순간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다는 그 심정. 딱 그만큼 부끄러웠고, 또 그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명곤이가 정말 공장의 생산직에 지원할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을 언젠가부터 잊고 살았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고, 더불어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가르쳐야 할 교사인 제가 때가 묻은 어른이라는

사실이 창피하고 미안했습니다.

저는 성공은 제 머리 위 어딘가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늘 날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날개가 없으니 팔을 벌려 그저 열심히 날개 짓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행여 추락할까봐 옆이나 아래를 쳐다 볼 여유가 없었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또한 대학교 졸업 후 대기업에만 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강요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당연하다 생각해온 것들을 한순간에 모두 무너뜨려버린 이 아이의 용기와 대범함과 솔직함과 자신감이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거부하고 싶은 대표적인 ‘어른’이라는 아이콘이 되고 싶지는 않았기에 현실은 명곤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을 아껴두었습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어 자연과 화연, 그리고 학벌로 인한 편견이나 선입견 등의 이유로 상처를 받게 된다면 상처를 감당하는 것 또한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했으며, 명곤이는 스스로 그 상처를 치유할 힘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명곤이는 역시 멋진 학생이었어. 선생님이 좀 배워야겠다. 명곤이를 참 좋아했는데,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아.”

스승의 날 아침, 교실 복도에 풍선 길과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남학생 24명과 여학생 1명이 어떻게 이렇게 깜찍하고 귀여운 이벤트를 생각해냈을까.. 즐겁게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교무실로 돌아와 단체 사진을 보며, 그 사진 속에 없는 2명의 학생을 생각했습니다. 입원한 영○, 그리고 용인으로 간 명곤이었습니다. 그 날은 삼성전자 최종면접날이었습니다. (감히 명곤이 부모님만큼이나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신없이 오전 시간을 보내고 점심을 먹고 교무실 자리에 앉아있는데, 평소보다 더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의 명곤이가 약간은 들뜬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 왔어요! 면접 잘 본 것 같아요. 면접관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냐고 하셔서, 오늘이 제 생일인데 합격을 선물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5월 28일 저녁 6시. 공공기관 동아리 선생님과 함께 복도에서 학교가 떠나갈 듯이 소리 질렀습니다. 명곤이의 삼성전자 엔지니어직 최종 합격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해준 명곤이를 비롯해 저희 반에는 이미 대기업, 공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합격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도 있으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취업의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 모두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저는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명곤이처럼 어른들이 만들어버린 편견에 맞서 당당히 자신의 꿈을 펼칠 학생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와 세상은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모습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겠지요. 앞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낮은 자세로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고 용기 있고 마음 따뜻한 인재 육성을 위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교단에 서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경기자동차과학고 3학년 4반!

올 한해 교사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보람을 배부르게 느끼게 해주어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언제나 힘내자, 아이들!

2013년 스승의 날 with 귀엽고 간지러운 이벤트를 마련해준 3-4반 아이들





## 고졸 취업, 그 해법은?



우리학교는 시골에 있는 면단위의 종합고등학교로써 학년별로 일반계 4학급과 전문계 2학급 총 18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계는 정보처리 학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전문계에 입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중학교 때 성적이 매우 낮거나 시골에 살면서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이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온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습은 물론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희망이란 찾아 볼 수 없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을 심어주면서 어떻게 하면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현재 7년째 실업실과부 부장으로 취업 및 비즈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비즈쿨을 학교에 도입하면서 비즈쿨이야말로 학생들에게 실의에 빠진 학생들을 일으켜 세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재미있는 학교생활을 이끌어 갈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깨달았

습니다. 비즈쿨 으뜸학교 - 비즈쿨 거점학교 - 비즈쿨 선도학교를 거치면서 제가 평소 꿈꾸던 학교와 학생상이 다가왔습니다. 자신감, 미래의 희망이 넘치면서 학생들이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하고 목표가 생기니까 스스로 자격증도 따고 틈틈이 학생들이 취업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우리학교는 16년 동안 금융권에 취업한 학생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생산직에만 취업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정부의 고졸채용 확대정책이 있어도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특성화고등학교정책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이 학생들이 제법 한명씩 금융권에 취업하는 것을 보면서 부럽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종합고등학교와 시내의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와는 그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KBS의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현재 3학년 54명중에 우리은행, NH농협중앙회, 삼성그룹에 3명이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내년 2월 졸업도 하기 전에 벌써 연수를 마치고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16년 만에 처음 있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부터 KBS의 <스카우트>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은행에 취업을 한 영미와 2013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를 통해서 NH농협은행에 취업을 한 경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 〈비즈쿨〉로 만들어 저서 〈스카우트〉에서 빛을 내다

우리학교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비즈쿨 운영 학교입니다. 비즈쿨이란 창업동아리가 3개 이상 있는 학교로 전국에 135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는 6개가 있습니다. 7년째 비즈쿨을 열심히 하고 있는 덕분에 전국 비즈쿨 교사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던 작년 4월, 교내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서부터 영미는 눈에 띄는 학생이었습니다. 눈웃음이 가득하고 발표를 잘하는 영미는 왕궁면에 사는 농촌마을 농부의 셋째 딸로서, 첫째 딸과 둘째 딸도 우리학교에 진학하여 현재 대기업 생산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이미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 활용능력자격증을 취득한 영미는 2학년 때부터 화려하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학년 한 해 동안 영미를 데리고 창업에 관한 발표대회에 적극 참여시켰고, 그 결과 교내 창업아이템경진대회를 비롯하여 전국의 우수한 창업아이템경진대회에서 다수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영미는 발표에 대한 노하우를 스스로 터득하며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학교는 정부의 창업시책에 맞추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창업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고, 영미의 '에어로젤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보호필름'이란 아이템의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가장 큰 행사인 창업영재육성프로그램인 새싹기업은 전국의 150개 동아리가 지원하여 1차부터 3차까지의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팀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선정합니다. 영미는 이 행사에 참여하여 최종 선정이 되어 미국 실리콘밸리까지 견학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머물던 농촌 여학생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서 페이스북 본사, 인텔 및 트위터 본사를 방문한 것입니다. 이 경험은 영미에게 문화 충격,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 그리고 인생관과 세계관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로 영미의 자세는 더욱더 바뀌었고 항상 웃는 얼굴과 자신감이 풍부한 학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KBS <스카우트> 프로그램 제작참여협조' 라는 공문을 받게 되었고 영미를 추천했습니다. 대상기업은 우리은행이었습니다. 방학 동안에 영미와 함께 우리은행 지원서를 작성하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발표하는 자세와 말투 등 여러 가지를 집중적으로 훈련하였고,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도 새롭게 준비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영미와 함께 노력했던 지난 경험과 실적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KBS의 <스카우트>는 예선부터 경쟁이 치열하였습니다. 67개 고등학교에서 235명이 지원하여 예선을 치렀고 본선대회에는 12명의 학생이 출전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한명이 영미였습니다. <스카우트> 프로그램의 방송출연으로 본선을 치렀으나 결국 최종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은행에서는 4월에 '2013 우리은행 직원 채용'을 하는 공문내용에 스카우트 본선진출자 추천을 해달라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영미는 다시 도전하여 우리은행에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영미의 합격은 우리학교 16년만의 은행취업이라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마침 체육대회를 하는 날 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여 있을 때 영미의 합격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교생에게 방송으로 합격을 안내하였고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생님, 모든 학생들이 놀라면서 기쁘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영미의 동네 왕궁면에서는 잔치까지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놀랍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결국 영미는 이 모든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11월에 한 달 동안 연수를 마

친 후, 12월초부터 우리은행 익산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춤 잘 추고 예쁜, 그리고 무뚝뚝한 경희

1학기 때 영미의 은행 취업은 다른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학생 스스로가 다지기 시작할 무렵 뜻밖에 새연이가 삼성그룹 고졸공채에 최종 합격하였고, 우리는 그저 다시 놀라고 기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1,2학년 학생들도 은행 텔러를 비롯한 각종 자격증에 관심을 가지며 더 높은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2학기가 시작하자마자 ‘2013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 개최 알림’이란 공문이 교육청으로부터 접수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희를 추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희에게는 잘 웃지 않고 가끔 무뚝뚝한 표정이 있는 단점이 있지만 워낙 끼가 많아 우리학교 댄스부에서도 춤을 가장 잘 추고 예쁘고 성적도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경희는 1학년 때부터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능력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동시에, 학교 댄스부의 주축 멤버로서 활약하여 댄스경연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활발히 학교생활을 해왔습니다. 영미가 창업부문과 성적으로 우수한 아이라면 경희는 댄스부문과 성적으로 우수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표정이 무뚝뚝해 보이는 단점이 있기에 3학년에 진학한 경희를 불러서 계속 지도했습니다. “웃어라! 밝게 웃어라! 기쁘게 웃어라! 자연스럽게 웃어라!”

지도의 성과가 나타날 시기에 마침 교육부등 15개 기관이 주최 및 주관을 하는 ‘고졸성공취업 대박람회’의 개최 소식을 접했습니다.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박람회에 NH농협의 사전면접을

신청한 경희를 비롯한 우리학교 3학년 54명 전부는 버스2대를 임차하여 아침 일찍 서울코엑스로 출발하였습니다. 박람회장의 부스마다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박람회의 열기는 너무 뜨거웠고, NH농협의 사전면접자만 300명도 거뜬히 넘어 보였습니다. 박람회장 을 보면서 정말 고등학생들의 취업열기가 높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희의 면접은 오후1시에 10분정도 이루어졌고 학생들은 박람회장을 순회하며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고 동아리부스 등도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경희는 면접과 필기시험에도 합격하고 최종면접까지 3차의 시험을 접하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최종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경희가 최종합격이 되고 연수를 받을 시점, NH농협중앙회 전북지부에 서 중요하고 의미 깊은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연수 장소로 출발하는 날, 신규직원 임용장 교부식에 선생님을 초청하여 행사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행사명은 바로 “은사님과 함께하는 특성화고 신규직원 임용장 교부식” 이었습니다. 신규직원이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을 모시는 자리에 초대받은 것은 큰 기쁨이자 영광이었습니다. 지부장님과 다과를 나누면서 춤을 비롯한 경희에 대한 자랑을 계속 하였습니다. 지부장님 말씀으로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전라북도 전 직원이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장기 자랑을 하는 자리가 있는데 경희가 그곳에서 돋보이면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경쟁적으로 데려가려고 할 것이라는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결국 성적도 우수해야 하지만 각자 특기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지부장님의 축사와 함께 선생님이 학생의 가슴에 뱃지를 달아주는 의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는지 모릅니다. 경희의 왼쪽 가슴에 뱃지를 달아주며 경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경희야! 너는 우리의 희망이야” 눈물을 글썽이며 뿌듯해하는 경희의 예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격했습니다.

## 고졸 취업 희망을 찾다

경희까지 합격을 하고 나니 먼단위의 종합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중학교 성적이 부진했던 학생들이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동자는 더욱 초롱초롱해지기 시작했으며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영미와 경희 그리고 새연이는 1학년과 2학년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졸취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이 되었고 그 열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9월에 열렸던 2013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에서도 보았던 고등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를 통해 우수한 고졸출신 인력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쏟아진 기업체들의 고졸채용 공문을 접한 후, 저와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도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으며 고생한 만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없던 방과 후학교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시골의 종합고등학교에서도 얼마든지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3년의 교직생활동안 가장 뜨거웠던 2013년! “네가 우리의 희망이야”라고 경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제가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의 희망임을 느끼며 오늘도 희망을 키워갑니다.



## 0.1g의 희망과 손을 잡고



초여름 햇살이 쏟아져 내리는 6월24일의 청명한 아침. 나는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 서 있었다. 딸 지수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최종합격한 후 갖는 연수 첫날, 이제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나의 딸 지수에게 모녀 시간이 아닌 사회인으로서의 인간적인 예의를 표하고 싶어서 첫 출근을 배웅하였다. 지수가 한국예탁결제원 정문안으로 사라진 후,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서 고난이 빚어낸 빛나는 결과물 앞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기나긴 세월은 고통과 가난과 눈물로 우리의 곁에 다가왔었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고스란히 그 세월을 떠안고 이겨내야 하였다. 6여년 넘게 행방불명이 된 남편을 대신하여 빚 독촉에 시달리며 해결해야 했고,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홀로

삼남매를 키워 온 내 인생에게 첫 번째 선물이 온 것이다.

###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던.

지수가 중 3때, 나는 수없이 많은 갈등으로 고민하였다. 예쁜 여고시절을 공부만이 전부가 아닌 음악이나 여행 또는 또 다른 감성적인 시간들을 병행하는 것이 나의 교육관이기는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한부모로서의 현실 앞에서 그런 생각은 너무나 감상적인 사치일 뿐이었다.

왜냐하면 우리가족은 먹고 사는 일조차 버거운 날들을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지수를 인문계고등학교에 보내서 공부로 인생을 결정시키며 뒷바라지할 능력과 연년생인 남동생이 바로 뒤이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들어가는 등록금과 학원비 등을 감당할 여력이 나에게서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가 먼저 전남여상 디자인과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면 일본으로 디자인 유학을 갈 수 있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그래도 엄마가 교육업에 있는데 자신이 특성화고에 들어가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창피하지 않겠냐며 오히려 나를 걱정하는 것이었다.

담임선생님과의 충분한 상담과 특성화고에 대한 많은 정보 수집을 통해 전남여상 진학을 준비하며 스스로의 꿈을 찾아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전남여상 디자인과에 입학하였고 대학진학을 목표로 두었기에 내신을 철저히 관리하며 서울대생이 꼭 읽어야 할 100가지 도서목록에 따라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매월 한권씩 책을 구해주었다.

참으로 어려운 생활이었기에 책 한권 사는 것조차 버거워 시간이 날 때마다 나는 아름다운 가게며 인터넷 중고책 사이트, 도서관을 오갈 때마다 가난한 부모는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절망감이 나를 지치고 주저앉게 하였다.

또한 1학년 2학기에 담임선생님과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일본으로의 유학에는 너무나 높은 금전적인 벽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신 지수가 광주 교대에 수시입학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교대를 목표로 학교와 집에서 지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두 달 후 2차 학부모 상담 시 나는 정말로 다시 한 번 현실의 벽 앞에 서야했다. 수시 합격 시 교대 4년과 함께 임용고시 합격에 긴 시간을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리집 형편에 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 무계로 따지면 0.1g도 안될 것 같은 그 희망

그날 저녁 나는 지수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진로를 바꿔 일단 진학을 접고 취업을 먼저 하는 ‘선취업 후진학’을 결정, 곧바로 취업에 관한 상담과 함께 준비에 들어갔다.

취업에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아침 일찍 쓴 도시락과 함께 늦은 밤까지 학교에서 겨울방학을 보냈고, 혹독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한 겨울엔, 요금 미납으로 가스공급이 중지되기도 했지만 지수는 두세 켈레의 양말을 덧신고 담요를 뒤집어쓰며 책상 앞에서 일어설 줄을 몰랐다. 자격증 시험 떨어져도 괜찮으니 추운데 그만하라 말렸음에도….

찬공기가 가득한 냉방에서 “엄마, 난 괜찮아요 엄마 먼저 주무세요”하며 따뜻하게 웃어주던 딸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옆에서 책이라도 읽

으며 지나긴 겨울밤과 깊어지는 추위 속을 동행해주는 것밖에 없었다.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딸의 모습에 부모인 내가 더 감동받았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남몰래 자살을 준비하던 내 마음을 접으며 지수가 취업에 성공하기 까지 어느 순간, 어느 곳이나 함께 가기로 결심하였다.

그해 겨울 나는 이상목 교수의 '0.1g의 희망'을 읽고 또 읽었다. 무계로 따지면 0.1g도 안될 희망을 부여잡으며 내 삶의 의미는 나에게 남겨진 삼남매, 그 아이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이 세 아이를 세상에 보내려고 하는데 믿고 맡길만한 사람이 나밖에 없었나 보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혹독한 추위 속에서 나는 0.1g의 희망과 손을 잡고 일어서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세 가지 일을 하며 밤낮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엄마의 삶 자체가 삼남매에게는 산교육이라고 믿었기에, 살아있는 교육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믿었기에, 오랜 세월 쌓여 높아가는 퇴적암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굳건한 신뢰가 쌓여가는 과정을 놓칠 수가 없었다.

### **진로를 바꾼 디자이너, 한국예탁결제원에 합격하다.**

이후로 지수는 2학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포함한 모든 날들을 학교에서 지도해주는 취업준비와 학교수업에 충실한 결과 각종 관련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우수한 내신을 지켜나갔다. 어느 인문계 학생들 못지않게 더위와 추위 속에서 피땀 흘린 노력으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펀드투자상담사, 은행 텔러, 전산회계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며 1.8%의 내신 성적을 유지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3월, 취업부장선생님과 교장선생님 추천으로 지수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실시하는 고졸신입사원 전국 5명

모집에 응시하였고 서류 면접을 통과, 최종면접까지 합격하여 2주간의 연수를 마치고 현재 여의도 본사 증권대행부 명의개서팀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

고난 속에서 이루어낸 한국예탁결제원 합격은 인문계생의 대학합격보다 더 값지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내었고 이제는 일과 병행할 수 있는 대학에 대한 정보를 탐색중이다.

연수 첫날 아침, 나는 다산 정약용이 떠나면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당부의 편지를 쓰던 그 마음으로 딸을 위해 툼툼이 손글씨를 써서 만든 작은 책을 건네주었다. 여고 시절의 사진 여러 장을 붙이고 앞으로 읽어야 할 고전목록과 마음을 따스하게 하는 몇 편의 시와 명언들, 딸에게 보내는 여러 편의 편지, 그리고 최종면접 때 가슴에 달았던 수험번호를 넣어 만든 <새로운 시작>이라는 우리 둘만의 책을 전해준 것이다. 한없이 마음이 내려앉거나 낯설은 서울에서의 생활이 두렵거나 힘들 때, 직장생활로 인해 감정이 사막처럼 건조해질 때 읽기르 바라며,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세상에서 단 한권뿐인 책을 지수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였다.

그 후 지수는 5개월의 인턴직 임무를 잘 마친 후 11월24일 정규직 발령을 받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을 방문한 고객들의 칭찬과 더불어 모 경제지에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고 상사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성실하고 실력 있는 금융인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다.



## 복싱 선수, 9급 공무원이 되다!



11월 27일

공교롭게도 1년 전의 감동이 되 살아나는 눈 오는 날에 합격의 낭보를 들었다. 전라북도 도청공무원 최종 합격자를 예정보다 이틀이나 먼저 발표했다. 우리학교 건축디자인과 3학년 학생 두 명이 나란히 최종 합격자의 명단에 있었다. 더 큰 기쁨은 전체 3명을 선발하는 건축 직에 우리학교 재학생 두 명이 합격을 하였고, 도내 타 건축과에서는 졸업생 한명이 합격했다는 것이었다. 실력으로 따진다면 입학 성적이 우리보다는 훨씬 우수한 집단의 학교 학생들과 경쟁해서 거둔 성과라서 기쁨 두 배가 아닐 수 없다. 나는 두 명의 합격생 중 한 명의 학생과 나와의 인연으로 맺어진 값진 승리의 이야기를 꺼내어 특성화 고등학교아이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한다.

### 들어가면서

2012년 3월 2일 이리공고 부임 첫 날 한 아이가 나를 찾아왔다. 뒤에 무

엇을 숨긴 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채로웠다. “공부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제법 또랑또랑한 2학년 남학생이었다.

내가 특성화 고등학교에 근무를 시작했던 1996년부터 지금까지 고집해 온 교육 철학이 있다. 그것은 「학기 초 학생들과 상담하기 전에 절대 생활 기록부를 보지 않는다.」였다. 그것은 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 위함이었고, 10번도 더 변하는 것이 인간인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나의 확신 때문이었다.

###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를 알아본다.

당시 나는 3학년 담임의 보직을 받았고 아직 내 교실도 들어가기 전에, 내 학급의 학생도 아닌 다른 학년 학생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지만 1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새로 부임하여 오는 나를 소개해 주었다며 찾아온 아이와 첫 인연부터 느낌이 좋았었다. 정철이의 성적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정철이가 한 말은 “공부가 하고 싶어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복싱선수 출신입니다.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이었다.

공무원이 꿈이라는 정철이에게 첫 번째로 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 추천 기준을 알려 주는 것이었다. 내신 등급 평균이 3등급이내여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나서 생활기록부를 펼쳤더니 1학년 1학기 때의 성적이 6~8등급이었다. 2학기 때는 4~5등급으로 약간 향상이 되었던 것이 눈에 띄었으나 2학년 때 내신 성적이 모두 1등급이 나와도 3등급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이 만약 3학년 2학기 때 실시된다면 3등급 이내로 진입이 가능했다. 그래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였다.

나는 그 후로 교육청이나 도청 인사 담당자에게 전형 일정을 2학기 때 해야만 한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1학기 때 시험을 보면 전공분야에 대한 배움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과목은 과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선취업 후진학’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건의하였다.

나도 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복싱선수의 집중력을 알아봤고 반드시 합격시키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다.

###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던가?

2학년 마칠 무렵 정철이는 전공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2개를 취득하였다. 내신 성적도 3등급 진입을 눈앞에 두었다. 시험 일정이 3학년 2학기에 있을 것이라는 하늘의 뜻을 믿고 매일 늦도록 내 사무실 옆 임시로 만든 공간에서 공부를 하였다. 전공은 내가 직접 지도를 하였고, 물리 교과는 우리학교에서 제일 열정이 있는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여 다른 공무원 준비생들과 함께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집중 지도를 했다.

2013년도 공무원 시험 일정이 2월에 발표되었다. 우리는 환호성을 질렀다. 하늘도 우리의 원을 들어 주어 2학기에 시험일정이 잡혔다. 이제는 3학년 1학기 성적도 상위 등급을 유지하여 전체 평균을 3등급 이내로 진입하면 추천 대상자가 되는 것이었다. 나는 그 길로 우리학교 총동창회장님을 찾아갔다. 기숙사가 없는 관계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놓쳐서 택시로 귀가하는 일들이 종종 생겼기 때문에 동창회에서 학교 앞에 원룸을 임대해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다. 동창회장님과 임원님들은 “우리학교가 30년 동안 도청 공무원을 한 명도 배

출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만 합격시켜 준다면 무엇을 못 도와 드리겠습니까?” 하시면서 흔쾌히 6개월간 임대비를 후원하여 주셨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을 믿고 나와 정철이는 모든 열정을 쏟아 붓기 시작하였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나도 전주에 있는 집을 갔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직접 밥을 해 먹이면서 합숙을 하였다.

10월에 실시한 전라북도 교육청 시설직에 도전하기로 하였다. 나는 정철이를 위해 기꺼이 여름방학을 반납하고 같이 합숙을 하였고, 그 결과 1차 이론 시험에 합격하였는데 비공식으로 제일 우수한 성적이었다. 10일 후 면접 전형을 대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면접지도를 하였다. 우리학교에서 공채 시험에서 면접 불패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 할 수 있었다.

면접 당일 날 나와 정철이의 부모들은 면접 전형 시작부터 끝나는 6시간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뜰 수가 없었다. 며칠 후 뜻밖의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처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5일 후 도청 공무원시험이 또 있었기 때문이었다. 혹시 몰라서 그 시험도 내가 추천서와 지원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도청 시험에서도 이론은 월등한 성적으로 합격하였고 마지막 면접까지 치밀한 계획 하에 준비를 하였다. 교육청 탈락 이후 낙담할 만도 하였지만 우리는 심기일전하여 노력한 만큼의 이상으로 1등으로 합격하여 지금 공무원 임용 전 연수중에 있다. 최종 성적이 제일 우수하여 발령지역도 제일 먼저 선택권이 있

어서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전주시청으로 발령 대기 중인 상태이다.

### 편견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나는 편견을 버리고 7등급이었던 아이를 공무원 준비반에 합류 시켰던 것과 내가 데리고 합숙하게 했던 결단을 나 스스로 자찬하고 싶다. 복싱선수에서 최고의 기술자로, 공무원이 되는 모습을 꿈꾸는 것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공무원 준비반의 슬로건이 지금도 나부끼고 있다.

### 현수막 잔치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교장선생님께 건의 하여 배너용 현수막과 교정에 게시 할 수 있는 여러 곳에 합격소식을 전하자고 하였다. 패배 의식이 만연해 있는 학생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제2의 이정철을 꿈꾸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합격자 두 명에게 전주 합죽선 부채에 내가 직접 만든 합격인증서를 만들어 주고 기념 촬영을 하였고, 그 사진을 현수막에 삽입하여 게시하였다. 그 다음날 나는 취업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직전 학교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명문 대학에 입학시켜 화재를 불러 일으켰었는데 이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에 맞게 고졸 취업의 신이라 불리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저도 공원 하고 싶어요.” 하고 찾아온 아이들이 60여명에 이른다.

### 이제 시작이다.

공부와 담을 쌓았던 아이들이 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자격증 취득 열풍

이 불기 시작하였다. 팝송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악기를 다루기 시작 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요즘 우리학교 교정을 밝고 활기차게 만드는 하나 열마전에 동창회에서 학교 앞에 쓰리 룸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주었다. 더 많은 아이들을 합숙시키라는 동창회의 열망을 외면하지 못한 채 나는 다시 시작을 하였다. 내년에는 우리학교에서 공무원, 대기업 공공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까지 짝쓸이를 하기 위해 나는 오늘도 발길을 쓰리 룸으로 돌린다. 아이들의 간식을 만들기 위해~~~



## 도전하세요,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요!



### 나 자신과의 싸움

2013년 7월 11일. 내가 특성화고등학교인 중문고등학교에 취업지원관으로 첫 출근하던 날이다. 특성화고하면 대부분에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모인 실업계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학생들을 데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3년 동안 고용센터에서 성인을 상대로 취업상담을 해 왔던 나였기에 나름대로 솔직히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러나 성인보다 쉽게 학생들을 취업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에 생각은 첫날부터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학생들에게 취업이라는 것은 단지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자신이 왜 취업을 해야 하는지? 혹은 왜 진학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에게 취업을 권유하는 것은 소귀에 경 읽기였다. 그저 다른 친구들이 취업을 하기 때문에 취업을 희망하거나 부모님이 취업을 하라고 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었다.

자신의 인생에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로 항상 전락해 버린 학생들을 보면서 나는 한숨부터 나왔다. 취업지원관으로서의 앞길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 사는 학생들, 인생의 목표도 없이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 이 모든 표현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너는 학교에 왜 나오니? 부모님의 학교 가라고 해서요. 그럼 너는 목표가 뭐니? 목표 같은 것은 없어요.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되요.’ 그 대답은 한 반에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목에서 타고 흐르는 소리였다. 그 대답에 나는 한동안 멍하니 그냥 서 있었던 것 같다. 뭔가 돌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그 순간 너무 당황했던 것 같다.

그 시간이후로 한동안 학생들에게 어떤 물음도 던질 수가 없었고 학생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라는 물음만 한없이 나 자신에게 반복했다. 나와야의 싸움은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갔고 나와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그리고 내가 잘해 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수 백 번 나 자신에게 한 것 같다. 솔직히 그때 심정으로는 포기하고 싶었다. 그리고 정신없는 나에 모습을 거울에 비춰봤을 때 나는 그만두기 위한 핑계를 찾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만 같았다.

## 변화의 바람 앞에 서있다

정신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고 충고해 준 이는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선생님이다. ‘무얼 그렇게 고민하고 있느냐? 망설이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라!! 실패가 두렵니? 그러면 넌 애시 당초 다른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만큼 떳떳하지 못한 것이다. 너도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누구를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냐?’ 그 말을 듣고 나서 정신을 차렸을 때 내 눈앞에 학생들이 보였다.

내가 그동안 무슨 걱정을 하고 있었을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라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라고 치부해 버려 걱정만하고 학생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은 나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러웠다. ‘그냥 흘러버린 시간을 다시 잡을 수 없기에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변화시켜보자.’

하지만, 그 변화라는 것이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생각한 방향과는 정반대로 진행되는 일도 허다했다. 특성화고 취업지원관으로서 경험이 없던 나에게는 이런 작은 부분부터 걸림돌로 작용되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학생들에게 취업마인드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직업관련 특강이 있으면 방문해서 들곤 했다. 하지만 직업관련 특강이 대부분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학생들에게 접목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았다.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에 이 학생들에게 취업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학생들과 상담하는 것조차 힘든 이 시점에서 내가 이 학생들에게 취업을 하라고 아무리 외쳐 보아도 소리 없는 메아리 일뿐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나에게 가장 부족한 점은 7월에야 학생들과 만나게 되어서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나와 달리 취업부장선생님은 학생들과 같이 보낸 시간이 많아서 학생이름만 듣고도 그 학생에 대한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였다. 처음에는 취업처에 대한 의뢰가 있어도 학생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냥 취업부장님께 ‘이런 의뢰가 있습니다. 추천할 학생이 없는지요?’라고 묻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학생에 대한 정보가 없기에 아무리 좋은 취업처가 의뢰가 되어도 취업부장님이 없으면 그림에 떡이었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상담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학생에 대한 많은 정보는 아니지만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이제야 취업지원관으로서 조금의 자격은 있는 것 같았다. 아니 그렇게 나 스스로를 위안했는지도 모른다.

## 한 학생과의 만남

허지우. 이 학생이 나에게 취업을 하고자 찾아 왔을 때 그 학생에 대한 정보는 ‘단지 커다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이것이 전부였다. 그동안 어떻게 생활해 왔고 어떤 장점이 있는 학생인줄 모르는 시점에서 허지우 학생과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 첫 만남은 ‘어느 쪽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니?’라는 물음으로 깨지게 되었다.

“핸드폰 판매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영업인데 지금 네가 하기에 너무 버거울 텐데”라고 나는 단호하게 다른 편한 쪽으로 지원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그 학생에 눈은 빛나고 있었고 ‘나에게 핸드폰 판매원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라고 무언에 무엇인가를 보내는 것 같았다. “그럼 왜 핸드폰 판매원이 되려고 하니?”라고 묻자, 지우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다.

“저는 평소에 최신 핸드폰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직접 사용하면서 그 핸드폰에 대한 장점이거나 단점을 미리 알고 친구들에게 얘기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흔히 ‘얼리어답터’라고도 하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그 학생에 말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하고 동조하게 되었다. ‘핸드폰 판매원에 대해 좋은 점만 보지 말고 어려운 점도 헤아려 보기 바란다.’라는 말로 허지우 학생과의 첫 만남은 끝이 났다. 학생이 돌



아가고 나는 곤란에 빠졌다. 보통 핸드폰 판매원은 고졸이상자들을 대부분 채용하고 경력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핸드폰 판매에 경험이 전혀 없고 고졸예정자인 허지우 학생에게 쉽사리 취업처가 제공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에 생각은 틀리지 않았고 대부분에 사업체에서 고졸예정자이고 핸드폰 판매에 경험이 없는 지우 학생을 채용하기에는 자신들의 그리 녹록치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남학생들이 가장 큰 걸림돌은 군문제이다. '이 학생들을 채용하고 실무에 들어 갈 때 쯤 이 학생들의 군대를 가버리면 우리가 이 학생을 채용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회의적인 답변만이 돌아왔다. 그 말에 대해서 한마디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현실이기 때문이다. 남자라면 당연히 국방에 의무를 다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취업할 때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동안 성인을 상담해 왔기 때문에 군문제가 취업의 당락을 판단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등학교 남학생들에게는 어떤 능력보다 어떤 장점보다 군문제가 우선시 되는 풍토가 너무 안타까웠다. 간혹 대그룹 공채를 보면 미필자도 가능하다는 채용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많이 걸림돌로 작용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기에서 포기하면 지우학생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다양한 채용사이트를 며칠 동안 찾아 헤매었던 것 같다. 내가 힘든 것 보다는 지우학생에게 좋은 취업처를 구해주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서는 더욱 견디기 힘든 점이였다.

나의 간절한 바람과 지우학생이 간절한 바람에 응답이라도 하듯 한 업체에서 지원서를 제출해 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때 지우학생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직도 눈에 서하다. 지우학생의 강점은 다양한 공모전에서 수상

한 경험과 학생회 간부로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이었다. 학업성적도 우수한 편이었지만 그것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꾸준히 성장시켜 왔다는 것이다. 며칠 동안 지우학생과 마주앉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했고 서류전형에 임했다. 서류전형합격자가 발표하던 날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기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했는지 모른다. 다행이도 지우학생에 이름 석 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있었고 인적성검사가 지우학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동안 인적성검사는 다양하게 경험했기에 별 어려움 없이 통과하여 면접을 대비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부터가 문제였다. 최종합격의 명예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에 오만은 지우를 탈락시키고 만 것이다. 당연히 합격할 것 라는 기대로 면접을 소홀히 한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 조금 더 면접을 대비해서 철저히 교육시켰다면 실패라는 경험을 지우학생에게 선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동안 지우학생에게 너무 미안해 안절부절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우학생이 오히려 나를 먼저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닌가!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 아직 젊습니다. 실패도 많이 해봐야 성공에 기쁨도 큰 거죠!” 그 말에 저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리게만 보던 나의 학생이 나를 먼저 위로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다. 저 학생이 나를 먼저 일으켜 주고 있지 않은가?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핸드폰판매원에 대한 채용공고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핸드폰 판매원에 대한 타 지역 채용공고는 존재했지만 제주도 지역에 채용공고는 흔히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 기다림과 기쁨과 새로운 시작

채용사이트를 통해서 핸드폰 판매원을 검색하던 중 대그룹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다. 채용조건상에는 지우학생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에 채용담당자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냈다. 쉽게 전화를 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글로 지우학생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나올 것 같아서 메일을 선택했다. 먼저 우리학교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귀 회사에 왜 이 학생이 들어가고 싶어 하고 이 학생이 귀 회사에서 얼마나 어울리는 인재인가를 어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지우학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은지라 지우학생에 대한 장점을 한 페이지나 가득 채우게 되었다.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이 학생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귀 회사에서 점점 성장해 가는 지우학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다른 지원자보다 지금 보여 지는 많은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 글로 지우학생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서 메일을 전송했다.

메일을 전송하고 이틀이 지나자, 그 기업체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넣어보라는 긍정에 답변이 왔다. 나는 그 메일을 보기가 무섭게 지우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에게 마지막기회가 왔다고 전했다. 지우학생은 나보다 더 기뻐했다. 마치 최종합격이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 번 주어진 기회를 잡고자 노력했다. 두 번 실패는 없다는 심정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기업체에 대한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자기소개서 안에 그 내용을 나타내고자 했다. 기업 입장에서 지원자가 지원하는 기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흐뭇할 것 같기 때문이었다. 정성스럽게 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고 바로 면접을 준비했다. 아직 서류전형은

발표한 것은 아니었지만 합격했다는 가정 하에 면접을 준비한 것이다.

채용사이트를 통해 기업체 기출면접 자료를 먼저 파악하고 그것에 대비하면서 서비스직종에서 요구되는 자세를 더불어 갖추고자 했다. 마치 나도 지원자가 된 것처럼 긴장하면서 면접에 대비했다. 다행히 지우 학생은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면접을 보게 되었다. 수일동안 면접 준비를 해온 지우에게는 면접이라는 관문이 그냥 어렵지 않은 통로의 일부분이었을지도 모른다. 면접관의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을 하고 나온 지우얼굴은 너무도 환했다.

“선생님 느낌이 좋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결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노력한 시간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최종합격 날까지 조바심을 내며 기다렸다. 드디어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고 지우학생과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그렇게 난리냐’는 표현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나와 지우학생이 걸어온 시간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흘러서 지우학생은 지금 당당하게 한 기업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종종 지우를 찾아가면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된다.

## 아직도 나는 갈 길이 멀다

이제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보다 ‘내가 어떻게 이 길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가 먼저였던 것 같다. 선생님이기 전에 학생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어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 부끄럽다. 그리고 내년 2월이면 졸업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미안함이 앞선

다. 더 유능한 취업지원관이 우리학교에 부임했으면 더 좋은 취업처를 학생들에게 선사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포기하거나 후회하지는 않기로 했다. 우리에게겐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어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정말 행복하다. 이 학생들과 함께 숨 쉬었던 공간이, 함께 했던 시간이 있어 감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취업지원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을 터.

벌써부터 내년이 기다려진다. 내년에는 ‘어떤 학생들과 꿈을 꿀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마지막으로 우리학생들에게 말하고 싶다. ‘재능 있는 사람이 이따금 무능하게 되는 것은 성격이 우유부단해서이다. 망설이기보다는 실패를 선택해라’이 말을 항상 기억하면서 생활하기를 바란다. 실패라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망설이고 있으면 자신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요!

## 더 큰 도약을 위한 빠른도전 제2회 고졸취업 감동수기 공모전 수기집

**발행** 2014년 5월  
**발행처** 교육부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전화 : 02-6222-6060, 044-203-6118~9 (공휴일, 야간)  
팩스 : 044-203-6133, 6144 (공휴일, 야간)  
**교정교열** 강년수  
**인쇄처** 승림디엔씨  
전화 : 02-2271-2581~2  
팩스 : 02-2268-2927



“ 직무능력에 맞는 실력을 가지게 되면 학교와 상관없이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학교, 산업체가 전부 삼위일체가 되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꿈과 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

박근혜(제18대 대통령), 대통령과 함께하는 특성화고 간담회 말씀 중에서 발췌(2014.04.14.)

# 더 큰 도약을 위한 빠른도전

제2회  
고졸취업 감동수기 공모전